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趙成男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 and Reality of Drug Abuse among  
Young Adolescent and the ways of Prevention

2004年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學科

國際麻藥犯罪學專攻

尹 興 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趙成男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 and Reality of Drug Abuse among  
Young Adolescent and the ways of Prevention

위 논문을 國際麻藥犯罪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04年 8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學科

國際麻藥犯罪學專攻

尹 興 熙

尹興熙의 國際麻藥犯罪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조 성 권    印

審査 委員    조 성 남    印

審査 委員    이 상 환    印

## 국 문 초 록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일수록 마약이나 약물문제가 사회의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심각성이 지대하다.

먼저 청소년의 약물남용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만들어 내지 않는다 하여도, 약물남용 청소년 자신에게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약물에 의한 환각, 정신이상 상태하에서는 2차적인 청소년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청소년들의 그 비행정도가 날로 난폭해지고 집단성을 띠고 있으며 그 비행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요인 중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약물 남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먼저 일반인과 달리 그들이 주로 남용하는 약물인 술, 담배, 진정제, 본드 및 가스과 같은 흡입제, 암페타민류, 카페인, 대마초등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약물남용원인에서는 ①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성과 유전적 요인을 고려한 생물학적 원인 ②청소년약물을 사용하게 된 이유로서의 사회 심리적 원인 ③청소년의 특정시기에 개인적 동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본 개인적 원인 ④가정생활별 약물사용 경험률과 부모의 음주습관별 약물사용 경험률로 본 가정적 원인 ⑤약물사용장소로 우범지역인 재개발, 빈민주택가, 야산 밀집지역 등 지역적 원인 ⑥사회부조화 현상, 대중언론매체에 의한 학습으로 약물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 태도 등 사회환경적 요인등으로 조사분석하고, 나아가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에서는 ①분야별 약물사용의 경험에 대한 연도별 실태 ②연도별 및 성별 약물사용의 실태 ③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 ④연령별 환각물질흡연사범의 단속 현황 ⑤마약류사범단속의 실적 ⑥미국, 일본 약물남용실태 참고 등을 조사하여 약물남용결과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과 증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약물남용에 의한 청소년 비행의 실태를 각 조사자료에 의해 살펴보고 약물별 비행경험이나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 현황을 통해 청소년 약물남용이 비행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약물남용의 법적 규제

책으로 현행 마약류관계법령의 법정형을 비교한 바, 청소년의 법적 처리 문제의 중심을 현행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을 예시하여 치료보호제도와 감호제도 등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책으로서는 첫째, 정부의 전문적, 조직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적·제도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환경적 차원의 대책에서는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약물의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개선되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대책방안으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조기에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활용화되고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으로 약물로 인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사회사업제도와 같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동의 종합적인 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 약물 남용자와 비행청소년은 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적이고 교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약물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원인과 치료, 재활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보안책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요어 :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 예방대책

# 목 차

## 국문초록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b>제2장 청소년 의의와 특징</b> .....	3
제1절 청소년의 개념 .....	3
제2절 청소년의 특징 .....	4
<b>제3장 청소년 약물남용의 이론적 배경</b> .....	7
제1절 약물과 마약의 개념 .....	7
제2절 약물남용 용어해설 .....	7
제3절 약물남용의 역사적 배경 .....	10
제4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종류와 특성 .....	11
<b>제4장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및 실태</b> .....	19
제1절 약물남용의 원인 .....	19
1. 생물학적 원인 .....	20
2. 사회심리적 원인 .....	22
3. 개인적 원인 .....	24
4. 가정적 원인 .....	25
5. 지역적 원인 .....	27

6. 사회적 원인 .....	28
제2절 약물남용의 실태 .....	30
1. 청소년 약물남용 후 동향 .....	30
2.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	30
3. 약물남용결과 단계별 진행과정 증상 .....	34
4. 미국, 일본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	37
<b>제5장 약물남용 후 비행진행실태 및</b>	
<b>약물관련규제법규 .....</b>	<b>46</b>
제1절 남용 후 비행진행 실태 .....	46
1. 비행청소년의 분류 .....	46
2.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의 개념 .....	47
3. 청소년 약물남용의 비행실태 .....	48
제2절 청소년 약물관련 규제법규 .....	52
1. 현행 약물규제 법규 .....	52
2. 약물남용에 의한 비행청소년의 법적처리 .....	55
<b>제6장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대책 .....</b>	<b>65</b>
<b>제7장 결 론 .....</b>	<b>83</b>
<b>참고문헌 .....</b>	<b>86</b>
(부록)	
영문초록	

## 표 목 차

[ 표 3-1 ] 약물 오·남용의 개념 .....	9
[ 표 3-2 ]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특성 .....	16
[ 표 3-3 ] 약물별 특성 종합표 .....	17
[ 표 3-4 ] 일반분류에 의한 약물종합표 .....	18
[ 표 4-1 ] 서울시내 중·고생의 약물사용동기(복수응답) .....	21
[ 표 4-2 ] 첫 약물사용 이유 .....	22
[ 표 4-3 ] 최근의 약물사용 이유 .....	23
[ 표 4-4 ] 가정생활별 약물사용 경험률 .....	26
[ 표 4-5 ] 부모의 음주습관별 약물사용 경험률 .....	26
[ 표 4-6 ]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내역 .....	31
[ 표 4-7 ] 분야별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실태 .....	31
[ 표 4-8 ] 연도별·성별 약물사용실태 .....	32
[ 표 4-9 ]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	33
[ 표 4-10 ] 청소년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	33
[ 표 4-11 ]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	34
[ 표 4-12 ] 12세이상 약물남용 경향 .....	38
[ 표 4-13 ] 연령별 지난달 코카인 사용 .....	39
[ 표 4-14 ] 연령별 지난달 마리화나 사용 .....	39
[ 표 4-15 ] 8, 10, 12학년 약물남용 조사대상 학생수 .....	40
[ 표 4-16 ] 평생 약물 사용을 .....	40
[ 표 4-17 ] 피수형자 약물사용비교 .....	43
[ 표 4-18 ] 일본의 품목별 압수량 .....	44
[ 표 4-19 ] 일본의 메스암페타민 사범의 검거인원 및 압수량 .....	44
[ 표 4-20 ] 일본 중고생의 각성제사범 검거 .....	45
[ 표 4-21 ] 일본 연도별 각성제 사범추이 .....	45
[ 표 4-22 ] 일본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량 추이 .....	45
[ 표 5-1 ]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	48
[ 표 5-2 ] 청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	49

[표 5-3]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	50
[표 5-4] 각 약물남용 비행경험 .....	51
[표 5-5] 마약류 법령의 법정형 비교 .....	54
[표 5-6] 중독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 .....	57
[표 5-7] 치료기간별 치료보호 현황 .....	58
[표 5-8] 연도별 약물남용자의 치료감호 .....	59
[표 5-9]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기관 .....	61
[표 5-10] 보호관찰 종료사유별 현황 .....	62
[표 5-11]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추이 .....	63
[표 6-1] 소년 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	67
[표 6-2]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실적 .....	68
[표 6-3]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방법 .....	69
[표 6-4] 약물남용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 현황 .....	71
[표 6-5] 약물남용예방 학교개입 프로그램 .....	74
[표 6-6] 서대전 고등학교의 금연·금주 프로그램 .....	77

## ◎ 제 1 장

### 1절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대의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부작용 현상을 청소년 자살, 가출, 학교주변 폭력, 약물남용, 각종 청소년 범죄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기성세대가 제공한 유해환경은 청소년 범죄를 낳고, 이에 따른 비행청소년들의 행동성향은 과격성, 난폭성, 잔인성, 집단성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청소년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로 발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저변에 깔린 한탕주의, 퇴폐문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 본받을 묘사하는 각종 대중매체 속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현행의 파행적인 대입제도 속에서 호기심으로 일시적인 대리만족을 얻기위해 약물남용에 쉽게 빠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현상으로 계속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은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과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즉 관련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다각적으로 병행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청소년 약물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는 청소년 비행으로 확산되어 법만으로는 근절 시킬 수가 없으므로,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육성해나가 원인과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 청소년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약물남용에 의한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연구하며,  
셋째,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대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발생원인과 실태, 예방대책 마련을 주안점으로 삼고 그로인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그 자체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범죄가 되며, 동시에 약물남용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의 초기 발생원인 실태와 청소년의 약물남용 후에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 실태를 알아보고, 청소년 약물남용은 성인과 다른 청소년 특성상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발달 시기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빚어진 과오이므로 현행법에 규제하고 있는 각종 약물 관련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 재활 위주의 예방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범을 막고 교정교육을 위하여 우리나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 보호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이란 재범 방지 대책을 연구해보고 그러한 법제들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서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청소년의 개념, 특징을 고찰해 본다.

제 3장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의 이론적 배경으로 약물남용의 개념, 약물과 마약의 정의, 약물남용 용어 해설, 약물남용의 역사적 배경, 청소년 약물남용의 종류와 특성 등을 알아본다.

제 4장에는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실태를 알아보고 외국실태로 미국과 일본의 실태를 참고하였다.

제 5장에서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실태를 점검하고 그로인한 비행의 진행, 청소년 약물관계 국제 법규를 알아보고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책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방법은 주로 국제 기존 문헌과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헌 연구로는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 비행관련한 연구논문, 각종 간행물, 관련 기관의 연구자료, 인터넷 사이트 자료검색, 일간지의 청소년과 약물남용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일선경찰서 강력, 마약 수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에서 느낀 점 등 통계자료는 국가의 공인된 자료 및 관련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 ◎ 제 2 장

### 제 1 절 청소년기의 의의

#### 1. 청소년의 개념

심리학에서 청소년을 의미하는 언어의 adolescent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adolescent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의 정의를 내성적인 생활이 시작되어 정신적인 주체성을 가져가는 자아정체감(identity)의 형성기라고 정의하였다.(소키레1991) 심리학적측면에서 roth는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12-20세로 보았으며 ausubel은 청소년기를 행동의 미숙성으로 인하여 사회기관들 즉, 학교, 가정으로부터 행동의 규제를 받는 시기라 하였다.(meaton)

역사적으로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농경 사회에서는 어른 아니면 아이였고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의 등장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를 고유한 발달시기로 인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는 교육받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의 의무화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간동안 노동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기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문화나 사회에서는 아동이 그 사회의 고유한 통과의례를 거치면 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몇몇 원시 문화에서의 사냥의식이나 할례의식, 과거 우리나라의 성인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인한 재학기간의 연장, 직업훈련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먼저 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러한 기준으로는 신체적 특성에 의한 구분, 연령에 따른 구분 등이 있다. 먼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월경, 사정 시작)등으로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개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징후들이나 사춘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사람에 따라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더욱 분명치 않은데 이는 사춘기 때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시작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은 신체적인 징후로 판단되기보다는 그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령에 의한 구분이다. 1985년 UN에서 공식으로 규정한 청소년(young people)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이며 UN 기구중 국제식량기구(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 까지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부문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UN사무국이 UN회원국 및 비정부단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는 하한 연령을 7세부터 잡는 나라(1개국)도 있고, 상한 연령도 30세(10개국), 35세(4개국)까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이봉철 1992)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이며, 민법에서는 '만 20세' 를 성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란 개념은 통일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후 설하는 청소년의 신체, 생리, 심리, 정서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아동과는 확연한 발달 특성상의 차이를 보이는 시기인 12-13세부터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사회적 역할로 인하여 상당 부분이 완화된 연령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선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집단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 중의 한 시기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 양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이중적 성격 즉, 주변인(marginal man)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폭풍과 노도의 시기" 라고 한다. 과도기란 반드시 혼란과 진통이 있고 불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으로 그들의 내적 세계(성격이나 정신세계)나 그것이 외현 되는 생활에서의 행동징후로도 혼란과 불안정이 나타난다. 특히 이 시기는 성적관심도 뚜렷해지고 심리적으로 성인과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렬해지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의 특징은 신장, 체중, 체격의 발달과 2차 성장의 출현 등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성숙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체발달은 청소년시기에 소위 사춘기적 발육 촉진의 현상이 나타난다. 즉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며 또 근육과 내장의 여러기관이 현저히 발달한다. 특히 생식기관의 성숙으로 제2차 성장이 뚜렷해진다.

사춘기에 있어서의 정서 및 기질의 불안정성도 성적 성숙이 원인일 때가 많다. 즉 청소년의 불만과 불안정감, 권위에 대한 반항, 진리에 대한 의혹 등의 청소년기적 특유 현상은 흔히 청소년들에게 도피적 사색을 가지게 한다.

둘째, 청소년기의 특징은 정서 생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정서적 생활의 특색은 정서적 흥분성이 현저하다는 데에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서의 흥분성이 현저한 원인은 ①관념적, 공상적 세계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성 ②성적성숙에 의한 정서의 불안정성 ③이상과 현실과의 상극에서 오는 열등감에 의한 정서의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원인에 의해서 청소년은 항상 환희와 우울, 득의와 실망, 자애와 자기혐오 등의 양극단 사이에서 도용한다. 그 결과 청소년은 심히 감정적이 되어 청소년의 행동은 이상적, 객관적 이라기 보다 열정적이며 흔히 유아독존적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은 자아정체감(self-identity)형성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아의식이 발현되면서 과거의 나를 인식하고 독립된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와 탐색이 시도되는 정신적 이유기이자 지불유에 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원하는 내적인 강한 충동과 이런 충동해소를 어렵게 하는 외적인 사회의 중압에 직면하여 기존의 가치관에 반항하면서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을 정립해야 하는 이중의 시련을 겪게 된다.

넷째, 청소년기의 특징은 사회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생활이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 이전되면서 뚜렷한 가치관의 정립과 사회화의 기능이 학교교육으로 집약되나 우리의 현실은 학교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주변에 온갖 해악적 유해 환경요소가 확산되어 유혹함으로써, 극심한 혼란과 사회악에 오염될 상황과 시기에 처해있다. 또

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청소년기를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아이와 어른으로 동시에 취급받는 이중구속의 특징을 지닌다. 현대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성을 추구하고 공격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자를 존경하고 암전히 하라고 이야기 한다. 어린 시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져 있고, 지속되는 경험에 의해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성장을 이룩한다.

청소년기의 시작은 통상적으로 사춘기의 발현과 함께 시작되는데 세계에 대한 경험이 갑자기 넓어진다. 즉, 새로운 사상, 개념, 가치관 등과 만나며 여러 부류의 인간을 만나게 된다. 또한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과 연관된 많은 것을 결정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하며,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전혀 다루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재빨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어른의 중간에서 상호 중복되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현저한 신체 생리의 생물학적 급성장과 인지발달 및 정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또한 아동기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인격체로서 새로운 가치와 태도 및 성격형성의 재 체제화가 활발히 강화 학습되어 가는 제2의 탄생 기이자 대 격변의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상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조화와 불균형이 다른 어떤 시기에서 보다 쉽게 나타나는 위기와 문제의 시기로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시기에 밀어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작극복하고 그들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환경의 순화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하게 파행되어 그들을 괴롭히는 위기의 문제를 가급적 줄여주며, 또한 보다 슬기로운 대처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다양한 문제가 오히려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제2성격 형성기인 사춘기를 좀 더 바람직한 성격형성의 재창조기로 삼아, 보다 건전하고 좋은 성격형성교육을 위한 한층 과학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 제3장 청소년 약물남용의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약물과 마약의 개념

#### 1. 약물과 마약의 정의

우리가 흔히 약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용도의 약품도 약물이라는 단어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각이나 의존성을 발휘하는 약물은 주로 마약류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마약류는 대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괄하여 부르는 것이다. 약물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의약품이다. 그러나 약물을 의약품과 동의어로 정의할 경우 의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본드, 가스 및 LSD, MDMA, 대마초 등과 같은 환각제는 약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개념을 의약품과 더불어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신(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각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약물의 개념으로 보았다.

즉 약물이라는 개념을 현대 중독학에서 말하는 바의 약품이면서 습관 중독성 물질에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TO)의 정의에 의하면 마약류 또는 약물이란 “약물사용에 대한 요구가 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대검 2002년)

한편 한국형사 정책연구원(2003년)은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경 약물로 분류하고 술, 담배 이외의 약물을 중 약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술과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술과 담배를 경 약물의 범주에 넣고 살펴보고자 한다.

#### 2. 약물 남용 용어 해설

##### 1) 약물 오용(drug misuse)

약물에 있어서 사용, 오용, 남용등의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런 단어는 약물복용의 정도보다는 약물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화체육부 1996년) 약물 오용이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제대로 또는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물 오용은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이나 상황면에서 그

개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사용과 구별된다. 약물오용이 치료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분량이나 상황에서 복용할때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약물의 사용과 오용은 약물, 사람,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와 관련되어 구분되며 그 도덕성이나 합법성과의 필수적 연관성은 없다.

## 2) 약물 사용(drug use)

약물사용이라함은 의사의 처방유, 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있고 효능의 위험성이 적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광의적 정의며 특정 약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정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약물은 복합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효과의 판정이 어려운 때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약 본래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는 적고 또한 그 효과가 개인이나 사회에 별로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약물 사용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약물사용이란 용어는 오용이나 남용이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 3) 약물 남용(drug abuse)

약물남용이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과 법적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물이라도 환각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로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2002년)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미국정신 의학회 진단기준 DSM-N(Diagnostic Statistical Mannual, 4thed)의 다음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1년이상 지속하여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도 남용이라한다.

- ①약물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정하지 못한다.  
(예) 약물사용으로 인한 잦은 결석, 성적저하, 장애, 가족간 불화 등
- ②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약물을 사용한다.  
(예) 약물사용 직후 운전 및 기계를 운행하는 것)
- ③약물사용으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예) 약물사용과 관련해 체포
- ④약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한다.

(예) 가정불화, 싸움

약물남용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아편, 유사약물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신기한 효과 때문에 동료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와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약물의 사용, 오용, 남용의 개념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약물 오, 남용의 개념 문화체육부(1999)

내 용	약물사용	약물오용	약물남용
치료적 기능	있음	없음	없음
약물의존성(지속성)	없음	있음	매우 큼
신체적 장애	극히 적음	있음	매우 큼
사회적 기능장애	없음	있음	매우 큼

약물의 남용은 약물의 사용, 오용하는 단지 치료적 기능은 없으면서 의존성이나 신체적, 사회적, 기능장애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약물남용의 문제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약물의존과 중독

마약류 및 약물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사용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사용자가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래의 정신의학회 7가지 진단 중 3개 이상이 함께 1년이상 지속되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도 의존이라고 정의 한다고 한다.

①내성(olerance)이 있다. 즉 약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점차로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태이다.

②금단증상으로 약물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손떨림, 많은땀, 맥박이 빨라짐, 불면증, 구역질, 구토, 헛것이 보이거나 환각, 불안, 초조, 간질 등이 있고 약물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량과 비례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③생각했던 양과 기간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오랫동안 사용한다.

- ④사용중단이나 사용량 감소 노력에 실패했다.
- ⑤약물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 ⑥약물사용으로 인해 대인관계, 직업 및 취미생활 등이 저해된다.
- ⑦약물사용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질병이 발생 했음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함을 말한다(한국 마퇴부 2002).

우리나라 경우는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약물 중독 평가 척도 즉, 한 개인이 약물남용 혹은 의존 등 중독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가려내기 위해 주로 문항지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약물의 사용정도,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약물 종류에 관련하여 평가 문항지 9개 문항 중 “예” 라고 응답하면 약물 의존으로 보고 중독자로 평가하고 있다. 중독은 약물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과 일단 이용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조절 불능이나,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심한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다 말할 수 있다.

### 3. 약물 남용의 역사적 배경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기분이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여 왔다. 약물남용 문제 즉, 물질을 정당한 목적 이외에 함부로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는 문명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Dave Macdonald, 1991:125) 술이 그 대표적이다. 수천년 전의 성경의 기록이나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헌들에서 술과 술취함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인류는 술 이외에도 이러한 정신활성 물질들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 수천년 전의 중국고대의학 문헌에는 대마(마리화나)가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서구에서도 3,500년전 아편이 약물로 사용된 기록이 발견된다. 미래 원시부족들이 사용하던 환각제들도 바로 또 다른 예들이다. 이에는 남미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코카인, 멕시코 지방 인디언들이 선인장에서 추출한 메스칼린, 버섯에서 추출한 실로사이빈 등이 있다. 이들 약재들은 흥분, 각성, 다행감, 환각, 황홀경, 신비적 체험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 때(제사, 축제)부락 공동으로 복용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환각상태에서 며칠 동안 자지 않고 춤추고 쾌락을 즐기며 타인, 자연, 우주, 그리고 신령들과 대화하는 일체감을 누렸던 것이다.(민성길 1998. 2)

약물남용이 현대적 의미를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은 19세기부터 아편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마리화나)가 대표적인 환각식물로 등장하게 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아편 문제가 확산되던 1914년 마약규제법이 제정되었고, 1960년대에 반전 반체제 운동과 함께 대마초, LSD, 암페타민 등의 약물이 널리 남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헤로인과 코카인 등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계록 1994)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 큰 문제로 대두된 바 있었고 경제 부흥기인 1960년대부터 다시 남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매년 2만5천 여명 마약사범이 체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신나와 같은 흡입제가 널리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코카인 문제가 서서히 문제시 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마약 사용 역사는 광해군 3년(1611년)에 아편의 약효 및 재배법이 소개되었으며 약물남용 문제가 문제시 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의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이다. 일본 총독부는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에 아편물을 재배시키고 일본국민들에게 아편 사용을 묵인 조장하여 국내에서도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갔던 동남아 국가 등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였다.(김경빈 1998)

1945년 해방된 이래 1950년대의 전쟁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 아편 중독문제는 계속 기승을 부렸고 1957년 정부가 안정되면서 마약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마약단속과 법적체제로 인해 마약문제는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이에 따라 마약을 사용치 못한 중독자들이 법적 규제가 적은 진정제, 환각제, 대마초 등 비 마약성 약물로 대처하면서 비 마약성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자가 증가 되었다.

60년대까지의 아편문제, 70년대의 대마초 사건, 80년대에는 필로폰, 본드, 가스, 러미나 등 다양한 약물들이 문제시 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마약류 사범은 2,212건이 발생하였으나 90년 후반에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10,902건으로 급증하였다. (마약백서 2002)

#### **4. 청소년 약물남용의 종류와 특성**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는 약물에는 술, 담배, 본드, 가스, 대마초, 카페인, 감기약, 진통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들은 신체와 정신 그리고 감정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잘못 사용하면 많은 역기능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문화관광부 1999)

##### **1) 술(알코올, Alcohol)**

알코올(Alcohol)은 중추신경 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효과를 갖기 때문에 약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편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공격성을 증가시킨다(이윤로 1997)

알코올의 지속적인 과다섭취는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최근 여성 음주인구의 비중이 늘고있어 여성의 수유 및 생식능력 저하, 임산부의 알콜 사용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알콜은 신테 전 장기에 질환을 가져오지만 특히 간질환이 많고 당뇨, 심혈관계질환이 많다. 술과 니코틴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승작용을 하여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주가 약물을 남용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칠 정도로 술에 관용적인 우리 문화에서 청소년의 음주는 약물남용과 탈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음주 자체에 의한 폐해로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음주율이 1989년 48%이던 것이 1993년 59.7%로 늘고 있으며,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에서도 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력이 늘고 사회분위기가 이완되면서 청소년 음주율이 더 늘고 있다. 청소년 알콜중독자는 발견이 힘들고 경과가 다양하며 청소년의 다양성 때문에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 2) 담배(니코틴, Nicotine)

담배의 구성성분으로는 담배 한 개피 속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고 4,000여 개의 독성물질(Toxic Substance)과 20여 가지의 발암물질(Carcinogenic Substance), 담배연기 중에는 발암 협조물질(Co-Carcinogen)들이 들어있다. 발암 협조물질들은 그 스스로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발암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준다(주왕기 1989).

담배 속에는 중추신경계인 뇌 조직을 흥분시켜주는 니코틴(Nicotine)이 들어있다. 니코틴은 특히 기분을 좋게 바꾸어주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니코틴을 계속 사용하고 싶게 만들며, 내성이 생기게 하여 동일한 양으로는 예전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더 많은 니코틴을 사용하게 만든다.(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의 흡연은 약물남용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본드, 부탄가스 남용의 주 요인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폐해뿐만 아니라 마약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3) 진정제(수면제, 신경안정제)

진정제(Sedatives)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로 신경을 차분하게 하는 진정효과와 수면작용 및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킨다. 진정제중에서는 바르비탈류(Varbitals)가 가장 많이 남용되고, 상표명으로는 세코날, 아미탈, 페노바비탈 등이 있으며 신경안정제로 리브리움, 발리움, 안티반, 옥시제팜, 등이 있다. 진정수면제는 약리학적으로 중추신경 억제제로 분류되며 중독성, 습관성, 내성이 있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과 과량 복용으로 인한 억제적 행동을 나타내거나 나태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남용할 경우 뇌와 간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량 사용할 때 사망하게 되며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시 상승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호흡부전이나 홍수 및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박명운 1990). 진정제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두 번째로 높은 복용 약물이다. 여학생의 경우 약물중에서 생리통, 두통의 해소로 진정제 70.6%, 시험기간 중에 많이 복용하는 각성제 8.0%, 그 밖에 수면제 5.8%, 진해제 4.6%, 신경안정제 5.1%, 항히스타민제 3.3% 순으로 남용하고 있다.

특히 러미라는 환각성분이 있는 진해거담제로 청소년에게 문제시 되는 약물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종전의 4배 가량 크게 제조하여 감기약으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 번 남용량은 20~100정이고 소주등에 타서 마시는데 이것을 청소년 사이에서 “정글쥬스”로 통하고 2003. 10. 1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 약사들의 양심에 맡겨야만 하는데 가능한 제약회사에서 이름을 자주 바꾸어 청소년의 남용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03. 9. 18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

### 4) 본드 및 가스 등 흡입제(Inhalants)

유기용제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중추신경 흥분 혹은 억제작용이 있고 명정, 도취감, 환각 등을 유발하는 성질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남용하는 휘발성 물질이다. 코나 입을 통하여 흡입함으로써 체내에 들어가 중추신경 억제작용을 하며, 흡입을 통해 환각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흡입제(Inhalants)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본드,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모형비행기 접착제, 플라스틱 접착제, 페인트 희석제 및 제거제, 가솔린, 톨루엔, 사이렌, 매니큐어 제거제(아세톤), 액체구두약, 4염화탄소, 프레온 등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본드, 부탄가스 등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 대표적인 환각물질 흡입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남용하는 본드는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톨루엔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톨루엔은 환각작용이 있다. 톨루엔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도 접착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과학기술원의 연구보고도 있으므로(한진태 1997) 좀더 연구하여 아세톤과 같이 독성을 느끼게 하는 성분이나 악취가 나는 성분을 첨가하여 소위 ‘본드불기’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암페타민류(히로뽕 Philopon, 각성제)

암페타민류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분류되며 의학적으로 알콜 중독, 파킨슨병, 우울증, 간질, 수면발작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주요 암페타민류는 벤제드린, 덱스드린, 메스드린, 바이테타민 등이다(체육청소년부 1992). 암페타민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히로뽕(필로폰)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용되고 있는 히로뽕은 메스암페타민이다. 메스암페타민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참전 병사들이 피로를 막기 위해 남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군인, 공장 노동자들이 주로 남용하였다. 현재 메스암페타민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스웨덴, 미국, 우리나라 등이다(장혜수 2001).

히로뽕은 우리나라에서 밀조되어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것이 1980년대 들면서 일본 내에서 강력 단속되자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급격한 증가추세로 사용량이 남용되고 있다. 히로뽕 남용은 우리나라 약물 남용 역사상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엑스타시(Ecstasy)는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로, 미국에서는 “아담”, “엑스터시” 또는 “엑스티시”로 불리는데 환각성과 암페타민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합성 향정신성 약이다. 한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보다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3).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본드나 신경안정제와는 달리 메스암페타민이나 대마는 약물의 제제로서 일반인이 생산, 유통, 판매, 소지, 남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청소년층에서는 남용되는 사례가 일선 경찰의 통계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 6) 카페인(Caffeine)

카페인을 커피의 주성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흥분제이다. 카페인을 소량 섭취하면 정신을 좀 더 맑게 해주며 졸음과 피로를 없애주고 심장을 빨리 뛰게 혈압을 올려주며 위를 자극한다. 또한 카페인은 무색 무취이며 약간 쓴맛이 난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계속 마시게 되면 만성 중독과 함께 소화불량, 두통, 불안, 신경질, 감각의 이상, 변비, 등을 가져온다. 갑자기 카페인을 끊으면 부정맥, 사지 냉한, 허탈 등과 같은 금단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즉, 습관성으로 인해 불안감, 두통, 피로감, 콧물, 초조, 우울, 구토 등의 금단현상을 보이게 된다(체육청소년부 1991).

실제로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밤늦게 까지 자율학습이나 심야 학원수업을 받기 위해 졸음을 쫓는 대체 수단으로서 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제나 음료, 커피를 마시는 예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 7) LSD

LSD 복용 후에는 감각의 변화를 가져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이 민감해 지며 특히 체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각적인 환각을 초래함으로 흔히 미술가들의 남용 예가 많다. 즉, 물체의 색이 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평평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느껴지고 고정된 물체가 움직이고 굽이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고정된 물체가 움직이고 굽이치는 것 같이 느껴진다.

LSD는 습관성(정신적의존성)은 크나 탐닉성(육체적의존성)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LSD복용 시 자기 파괴의 두려움이 느껴지며 자부심에 장애를 가져오며 자기 신체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고 마치 남의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지속됨으로 이중감정에 의해 심한 경우 청소년들이 자살을 할 수 있다. 정신병 유사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 8) 대마초(마리화나 Marihuana)

대마(Cannabis Sativa, 삼)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마약에는 마리화나, 헤시시 등이 있으며 마리화나는 1만분의 1그램만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킨다. 헤시시(Hashish)도 소량 섭취시에는 마리화나의 효과가 나타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사이에서 남용되던 것이 연예인, 청소년 등에 파급되어 1970년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마리화나는 약리학적으로 중추신경흥분제 또는 억제제로 분류되며, 만성사용자는 정신적 의존가능성(습관성)이 있고 육체적 의존성(중독성), 내성 등은 없으나 마리화나 사용은 위험하고 분별없는 행동을 일으켜 육체적,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주왕기 1989).

그 밖에 중추신경억제제인 아편이나 중추신경 흥분제에 속하는 암페타민류, 코카인 등은 청소년층에서는 값이 비싸고 구입도 쉽지 않아 남용사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3-2과 같다.

(표 3-2)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특성

종 류	약물명	약물의 특성	심리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메틸알코올	술	중추신경억제제	있다	있다
니코틴	담배	중추신경흥분제 신경절 차단작용 -초기흥분, 후기마비	있다	있다
신경안정제	디아제판, 유타리돈 바리움, 아티반, 옥시돔	중추신경억제제 -긴장과 불안 감소	있다	있다
수면제	바르비탈	중추신경억제제	있다	있다
각성제	암페타민,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중추신경흥분제 -수면억제, 식욕감퇴	있다	있다
환각제	대마초, 마리화나	중추신경흥분(억제)제 -의식저하, 환각 동기상실, 신체손상	있다	있다
흡입제	본드, 신나, 가스 아세톤	중추신경억제제 -의식저하, 공포감 지각이상, 정서고양 공격적 행동	있다	있다
마약	마약성 진통제 :아편, 코데인, 헤로인 페티딘, 몰핀, 메타돈	중추신경억제제 -마취작용, 진통작용	있다	있다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러미나, 루바킹 아빌	다량 사용시 환각작용	있다	있다

자료 : 김혜숙 외(2002)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상담-실천이론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상에서 살펴본 남용약물들은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drug). 즉 사용했을 때 정신(psyche)을 향하여 작용하므로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하며, 정신의 세계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 CNS)의 지배를 받기 때

문에 향정신성 약물은 곧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향정신성 약물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형태는 두 가지로, 그 하나는 흥분(stimu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억제(depression)이다. 이들 약물을 특성별, 종류별로 정리해보면 (표 3-3) 및 (표 3-4)과 같다.

(약물중독 총론 김선이 2003)

(표 3-3) 각 약물별 특성 종합표

분류	종 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투여방법	남용효과	작용시간
천연 마약	아편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 조정력 상실, 간염, 사망	3~6
	모르핀	"	"	"		2
	헤로인	"	"	"		12~14
	코카인	중추신경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로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3~6
합성 마약	메사돈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	"	주 사	"	3~6
향정 신성 물질	펠로폰 (히로뽕)	중추신경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로흡입	흥분, 환시 환청,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중추신경억제	식욕억제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 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 류	"	정신신경 안정	"	"	4~8
	LSD	중추신경 흥분, 억제	없음	"	환각 예측불허행위	8~12
	메스칼린	"	진통	"	환각	8~12
대마	대마	"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환각	2~4
흡입 제	분드, 가스	중추신경억제	없음	흡 입	취한 행동 뇌 손상	

(표 3-4) 일반분류에 의한 약물종합표

구분	종류	약리학적 분류	의학적 용도	중독성 (육체적의존)	습관성 (정신적의존)
마약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사돈, 데메롤	중추신경 억제제	진통제 진해제 진정제	있음	있음
	코카인	중추신경 흥분제	국소 마취제	없음	없음
환각제	LSD, DMT DET, STP, LBJ, XTACY 메스카린 페니실린	중추신경 흥분제 그리고 또는 억제제	없음	없음	있음
	대마(마리화나) 해쉬쉬	중추신경 흥분제/ 억제제	없음	없음	있음
흥분제 (각성제)	암페타민(필로폰) 벤지드린, 텍스드린, 메테드린	중추신경 흥분제	기면증 비만증	있음	있음
억제제 (진정제 수면제)	바비탈류 페노바비탈 아미탈, 세코날 넵부탈	중추신경 억제제	진정제 항경련제 수면제	있음	있음
신경 안정제	디아제팜(바리움) 클로로디아제폭 사이드(리브리움) 로라제팜(아티반)	중추신경 억제제	안정제 근육이완제 수면제	있음	있음
흡입제 (분드, 가스)	톨루엔, 헥산 아세톤, 개솔린, 신나	중추신경 억제제	없음	있음	있음
술	포도주, 맥주 위스키	중추신경 억제제	진정제 혈관확장제 수면제	있음	있음
담배	Cigarette Cigars 파이프 담배 씹는담배 코담배	중추신경 억제제	없음	있음	있음

## ◎ 제4장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과 실태

### 제 1 절 약물남용의 원인

일선경찰서 형사과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청소년 약물남용관련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 근접한 Connell의 청소년기가 약물남용에 취한 이유로서 첫째 청소년기는 감정변화가 심하여 우울반응이 많고 둘째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며 셋째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는 특성을 지닌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처음 약물과 접하게 되는 이유로서 호기심을 든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위험이나 모험을 즐기며 자신을 시험해 보고 성인의 행위를 모방해 보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시기로 이해되기도 한다(최선화 2002).

Newcomb, Maddahian, Bentlen(1986)은 4년에 걸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사용의 위기요인들을 검증했다. 성인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인지, 동료의 사용, 낮은 학교성적, 부모와의 갈등, 낮은 자존감, 우울, 자극적 행동의 추구, 고상하고 특이한 경험에 대한 열망, 종교성 부족, 알코올의 조기 사용, 이탈에 대한 관용을 위기요인으로 제시하였다(이윤로, 2002)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남용을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들 수 있으며, 김성이(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물사용 이유를 괴로움을 잊기 위해, 잠을 안 자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적하고 주로 개인적 고민, 입시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그 자체의 변화만으로도 당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문제로 공부만을 강요받는 환경 하에서 더욱 불안감이 가중되므로 심리적, 육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물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임혜미 1999).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약물사용률이 몇몇 종류에 있어서는 이미 구미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약물사용과 청소년 비행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성이(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경험율이 흡연 36.6%, 음주 50.3%, 각성제 15.4%, 안정제 1.4%, 최면제 0.4%, 대마초(마리화나) 0.7%, 본드 3.7%에 이르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만을 따로 볼 경우 이 비율들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길홍 외(1985)의 과거연구에서 보면 12세에서 21세의 청소년 중 25.7%가 흡연 경험이 있고 그 중 14.9%가 현재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 ① 흡연과 음주의 경우에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 ② 법규의 제재가 따르는 마약류약물등의 경험율이 비교적 낮으나 각성제, 신경안정제, 본드, 등 입수가 용이한 약물의 사용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 ③ 이러한 각종 약물의 상습적인 사용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주요한 관심이 청소년층의 약물사용 실태와 그 비행과의 상관에 국한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관계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찰은 미흡한 편이었다(Gorsuch and Butler 2002)

이상과 같은 여러 문헌에서 초기 약물남용원인을 효과적으로 발견코자 생물학적, 사회 심리적,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환경적 측면의 원인을 조명해보면 이러한 초기 원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약물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생물학적 원인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체내물질이 불균형 상태가 되거나 어떤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약물사용의 유전적 이론에 따르면 약물 중독자들은 기질적으로 약물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마약퇴치본부, 1998). 알콜중독자의 아들은 비 알콜중독자의 아들보다 알콜중독이 된 확률이 4배 높게 나타나고 이고 여성 알콜중독은 부분적으로 유전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윤로, 1997), (2000).

개인의 차이는 체질과 관계되리라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체질성의 차이는 곧 유전적인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환경적 요인, 특히 다른 약물의 처치가 동물의 약물관계 행동에 변화를 야기시킴이 밝혀져 있다. 예를 들면 글루코코티코이드(glucocorticoid)나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아편류, 코카인, 암페타민 등에 대한 제강화와 운동반응을 증가시킴이 보고 되고 있다(이기정, 2000). 그리고 흥미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약물남용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면 약물중독에 관련된 유전인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민성길, 1998).

(표4-1)에서 보듯이 한국마약퇴치본부(1996)에서 조사한 서울시 내 중, 고생

의 약물남용 동기를 조사한 기록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는 생리통 때문에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39.8%로 가장 높았고, 통증해서를 위해서 22.6%였다. 실제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에서도 술 다음으로 진통제를 남용하는 연구결과를 보았다. 그 외 37.6%는 치료목적 이외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치료목적의 약물사용 중에는 시험 때 잠을 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함을 알 수 있다.

(표 4-1) 서울 시내 중, 고생의 약물사용 동기(복수응답)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전체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계	292	100 0	389	100 0	151	100 0	516	100 0	678	100 0
피로움, 우울감을 잇기 위해	7	2.4	12	3.1	5	3.3	14	2.7	19	2.8
멋있게 보이려고	5	1.7	2	0.5	6	4.0	1	0.2	7	1.0
친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5	1.7	5	1.3	7	4.6	5	1.0	12	1.8
부모님, 선생님에 대한 반발	8	2.7	4	1.0	1	0.7	11	2.1	12	1.8
심심해서	12	4.1	5	1.3	7	4.6	7	1.4	17	2.5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7	2.4	12	3.1	1	0.7	18	3.5	19	2.8
살을 빼기 위해	3	1.0	16	4.1	0	0.0	19	3.7	19	2.8
친구의 권유로	13	4.5	3	0.8	8	5.3	8	1.6	16	2.4
호기심	13	4.5	6	1.5	12	7.9	7	1.4	19	2.8
황홀감, 신비감을 느끼기 위해	3	1.0	7	1.8	7	4.6	3	0.6	10	1.5
공부할 때 잠을 쫓기 위해	38	13.0	61	15.7	30	19.9	68	13.2	99	14.6
용기, 강한 힘을 얻기 위해	2	0.7	0	0.0	0	0.0	2	0.4	2	0.3
생리통(여학생) 때문에	99	33.9	176	45.2	0	0.0	266	51.6	270	39.8
통증해소를 위해	75	25.7	8	2.1	65	43.0	85	16.5	153	22.6
잠이 안와서	2	0.7	2	0.5	2	1.3	2	0.4	4	0.6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6)

## 2) 사회심리적 원인

청소년 약물남용은 동료 집단이나 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험하고 자신의 주체성 확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같은 나이의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수용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동료압박(peer pressure)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남용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돌발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주변의 상황에 쉽게 동조되는 경향이 강하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서, 친구관계나 동료들로부터의 유혹에 쉽게 동조될 수 있다.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동료집단으로부터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가 좋아하는 약을 주위의 친구들이 권할 때 약물에 쉽게 빠지게 되며, 그 친구들 사회에서는 그 약물이 큰 위험성이 없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도 그렇게 믿게 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처럼 친구집단에서는 약물이 중요한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표 4-2)에서 보듯이 전국 청소년의 약물사용 이유를 조사한 자료에서 첫 약물사용 이유를 보면, 대부분은 호기심에서 출발하고 약물 중독 남학생 일수록 단순 약물사용 남학생이나 약물사용 여학생에 비해 친구의 권유나, 재미있다는 유혹으로 약물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는 또래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그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기 싫은 이유로 청소년들로서는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 여겨진다.

(표 4-2) 첫 약물사용 이유

(단위 : %)

구 분	약물중독 남학생 (n=54)	단순사용 남학생 (n=54)	약물사용 여학생 (n=20)
호기심	64.7	68.1	35.0
친구권유를 거절 못해서	17.6	10.6	15.0
피로움을 잊으려고	13.7	4.3	25.0
재미있다고 하니까	15.7	4.3	00.0
무응답	3.9	14.9	25.0
계	100.0	100.0	100.0

자료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정신적, 정서적 문제나 욕구에 대처하는 하나의 증상으로 설명된다. 알콜 중독은 긴장과 불안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법

이다. 심리학 이론의 한 부류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보상과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를 반복하고, 처벌과 불쾌감을 가져오는 행동은 회피한다. 긴장, 불안 또는 우울한 상태의 개인이 어떤 계기로 음주를 하게 되고, 유사한 문제상황에서 다시 술에 손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개인생활의 일부로서 음주가 자리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알콜중독이다. 이 이론은 술과 같은 특정한 약물을 처음 시작하는 심리적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물의 남용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과음으로 인하여 결석한다던가, 사회적인 인정을 덜 받게 된다던가, 가족관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와 같이 음주 결과가 쾌락을 가져다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술을 멀리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사회학습이론 이외의 다른 이론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앞의 (표 4-1)에서 보듯이 괴로움, 우울감을 잊기 위해(2.8%), 멋있게 보이려고(1.0%), 친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1.8%),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2.8%), 호기심(2.8%)등 사회심리적 원인이 약물남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의 최근의 약물사용 이유에서는 약물중독 남학생일수록 단순 약물 사용 남학생이나 약물사용 여학생에 비해 그 이유가 아주 다양하며, 환각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물중독 남학생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면 '용기나 자신감이 생기니까' 외에도 '재미있어서', '기분 좀 풀려고'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설문 문항이 애매모호하여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기는 무리가 있다.

(표 4-3) 최근의 약물사용 이유

(단위 : %)

구 분	약물중독 남학생 (n=54)	단순사용 남학생 (n=54)	약물사용 여학생 (n=20)
재미있어서	35.3	12.8	10.0
기분 좀 풀려고	31.4	10.6	30.0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31.4	4.3	15.0
시간이 잘 가니까	27.5	4.3	5.0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25.5	0.0	15.0
괴로움을 잊으려고	21.6	0.0	30.0
약물을 사용하면 용기, 자신감이 생기니까	37.3	4.3	5.0
약물사용을 중단하면 괴로운 증상이 나타나니까	13.7	2.1	10.0
주변에서 약물을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31.4	10.6	15.0

구 분	약물중독 남학생 (n=54)	단순사용 남학생 (n=54)	약물사용 여학생 (n=20)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으니까	25.5	0.0	5.0
부모님이나 주변에 대한 반항심리로	15.7	4.3	15.0
더욱 남성(여성)다워지고 싶어서	13.7	0.0	0.0
우리 나이 때에는 다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21.6	2.1	10.0
무응답	7.8	61.7	45.0

자료 : 문화체육부(1996)

### 3) 개인적 원인

약물 사용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수로서는 자아상실감, 비 도덕성, 무력감, 숙명적 태도, 고독감, 사회에 대한 불신, 소외감, 안주하려는 속성 등을 들 수 있고, 청소년 약물남용자들은 흔히 자존심의 저하, 소속감의 저하, 소속감의 결여, 대인관계 시 의사소통의 부적절성,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의 저하 및 판단력 저하 등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허영심이 강하고 쾌락 추구적인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김현수, 1988). 청소년의 특징적인 시기에 약물을 남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개인적 동기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장혜수, 2000).

#### ① 모험추구형(adventure-seeking type)

평소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정상적인 모험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은 약물복용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할 때 접하는 유형이다.

#### ② 평화추구형(peace-seeking type)

평소 많은 갈등을 겪어온 청소년들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대신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자 할 때 이를 접하는 유형이다.

#### ③ 교우관계추구형(friendship-seeking type)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필요하며 친구를 사귀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독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종종 친구를 사귄 때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약물을 사용한다.

#### ④ 힘추구형(power-seeking type)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

고 있다. 약물은 어떤 경우 이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을 제공하고 이러한 착각을 경험하면 약물을 자주 사용한다.

⑤미적감각추구형(aesthetic-seeking type)

사람들은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느끼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

⑥성적동반자추구형(sex-companion-seeking type)

청소년기는 성적 충동이 증가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약을 받으므로 성행위를 할 때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약물을 복용한다.

⑦초월명상추구형(transcendence-seeking type)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의 느낌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경험 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경험하려 한다(표갑수, 1998).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 사용동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화추구형이나 모험추구형 사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힘추구형이나 교우관계추구형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소야자, 1987). 이는 처음에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또는 친구의 권유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심적 갈등 해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 4) 가정적 원인

여러 가지 가족 요인들이 약물남용에 영향을 준다.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보기란 어려우므로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개인의 약물남용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기정, 2000). 약물남용에 대한 가족의 영향으로 유전적 요인과 가족의 구조나 역할, 상호작용, 스타일 등 가족의 역동성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약물남용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약물남용과 가족의 항상성간의 관계가 자주 지적된다. 가족관계의 역기능이 있을 때 그 역기능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여 이 균형이 깨지면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물남용은 가족의 정서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개인과 가족의 적응기제로 작용하는 안정요인이 되기도 한다(정수경, 1996).

정신분석이론 측면에서 약물남용의 원인을 초기 부모-자녀관계, 특히 모친과의 관계에서 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성장하여 환경에서 오는 좌절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쉽게 약물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체육청소년부, 1995).

(표 4-4) 가정생활별 약물사용 경험률

(단위 : 명, %)

구 분		N	약물사용 경험률	유의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303	12.9	P<.001
	가고싶다	573	14.0	
	그저 그렇다	749	19.0	
	가기 싫다	208	28.8	
	가출하고 싶다	28	42.9	
부모님과 대화를...	매우 자주 한다	196	12.8	P<.001
	자주하는 편이다	557	15.4	
	보통이다	815	17.8	
	하지 않는 편이다	269	15.3	
	전혀 하지 않는다	34	32.4	
가정 분위기는 ...	아주 화목하다	210	11.0	P<.001
	대체로 화목한 편이다	976	14.7	
	그저 그렇다	519	23.9	
	별로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143	25.9	
	아주 화목하지 않다	23	39.1	

자료 : 김혜숙 외(2002).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상담-실천이론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표 4-4)에서 가정생활별 약물사용 경험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4-4)에서 보듯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고 싶은지 여부에 대해 '빨리 가고 싶다' 가 12.9%, '가출하고 싶다' 가 42.9%이며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한다' 가 12.8%이며 '전혀 하지 않는다' 가 32.45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아주 화목하다' 가 11.0%, '화목하지 않다' 39.1%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가정의 청소년 중에서 약물사용 경험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가정 내에서의 대화 부족이나 심리적인 지원체제의 마비가 청소년의 약물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부모의 음주습관별 약물사용 경험률

(단위 : 명, %)

구 분		N	약물사용 경험률	유의도
아버지의 음주습관이 ...	심각하지 않다	1,080	13.2	P<.001
	심각하다	668	21.5	
	아주 심각하다	125	39.2	
어머니의 음주습관이 ...	매우 자주한다	1,745	17.1	P<.001
	자주하는 편이다	122	27.8	
	보통이다	6	50.0	

자료 : 김혜숙 외(2002).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상담-실천이론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표 4-5)는 부모의 음주 습관도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부모의 음주습관이 심각할수록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는 '심각하지 않다'가 13.2%, '아주 심각하다'가 39.2%이며, 어머니는 '심각하지 않다'가 17.1%, '아주 심각하다'가 50.0%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약물경험자들이 음주자이거나, 음주자인 부모를 가지는 경향이 많다는 외국의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음주뿐만 아니라 부모의 흡연, 부모의 기대 등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김헌수, 1988). 부모들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청소년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습관을 배우게 되며, 적대적인 감정 상태에서 약 먹는 습성을 모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 5) 지역적 원인

청소년들이 담배, 술, 본드, 가스 등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조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 지역적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반 의약품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담배, 술 같은 약물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약물을 사용함이 유명인이나 세련됨, 성공, 성적어필, 쾌락에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의 영향도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일선 형사과 근무하면서 청소년 약물남용 장소에서 검거한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정지역, 빈민지역, 야산이 주택가에 접한 지역, 주택가, 소형공원, 아파트, 옥상, 빈 공장, 일반주택가 소재 PC방, 오락실, 만화가게, 그리고 야외 화장실 설치지역, 서울 한강시민공원 등 지역에서는 담배, 본드, 술, 가스, 약물 사용자를 검거하고 도시지역, 빌딩, 대공원, 신홍도시, 공원, 비디오방, PC방, 유흥가, 신촌, 신림동, 청담동, 압구정동, 시내 호텔 등에서는 마약류, 엑스터시, S정, 러미나, 대마초(마리화나)로 검거된 사실이 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논문(1993) 빈민지역가 야산이 많은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므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쉽게 본드나 가스와 같은 약물을 흡입할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생태학적 입장에서 비행지역 이론을 주장한 SHAW와 Mckay는 비행청소년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대도시의 중심부인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민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들 지역은 사회문제적 해체 내지는 붕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성인 범죄를 포함한 각종 이탈행위의 발생률이 높다고 했다.

그 밖에 집 밖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은 호기심의 대상이며 바로 모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야산이 많거나 인구밀도가 조밀한 도시 빈민지역을 청소년들에게 본드를 비롯한 약물사용의 장소로 제공되기 쉽다는 여러 논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남용중 지역적 원인이 어느 원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6) 사회환경적 원인

사회학자들은 청소년 약물남용이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가치체계 도덕관이 붕괴된 혼란된 사회, 알콜이나 약물에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화배경의 사회, 하층계급이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약물남용자가 많다는 것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화 현상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느낄 때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김현수, 1989). 산업화, 배금주의, 빈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긴밀한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리고 전통 문화적 가치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가치관이 미처 형성되지 못했을 때 각 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고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를 남용하게 된다.

둘째,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개인이 자신보다 상위의 위치에 있는 권위적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어떤 행동을 모방한 후에 보상이 많이 주어진다고 느껴질수록 더 많이 학습된다. 흔히 모방되는 대상은 부모, 형제 자매, 또래, 연예인이나 매스컴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특히 또래와 순위 선배들의 행동을 훨씬 많이 모방한다.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담배, 약물 등과 관련된 영상장면이나 광고는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의 기대심리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셋째, 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태도인데, 약물사용에 대한 기대심리도 학습되어지며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약물남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관용적인지 혹은 엄격한 것

인지에 따라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기대심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음주습관 자체가 후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해주고 수행능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믿을수록 음주행위가 늘며, 좀 더 어린 시절부터 술을 마시게 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가치, 규범 그리고 사회 조직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규범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약물의 사용에 대해 사회전체 또는 일부 사회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용인되거나 심지어 격려되는 상황이 약물남용의 원인이 된다. 이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른데, 알콜 중독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음과 폭음을 '호걸다움'으로 용인하는 사회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의 형성을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본드, 부탄가스, 흡입의 경우에도 또래집단에 뒤지지 않으려는 심리,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격려 등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종합적으로 약물 남용의 원인에 대한 시각을 조망한 결과 각각의 관점들은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약물남용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가지 사항이 있다. 그 하나는 특정의 약물을 상습적으로 사용한 결과 약물사용을 중단할 수 없게 되는 생리적인 과정을 수반하는 약물자체의 요인이 약물남용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다수의 약물들은 내성과 금단증상을 지니고 있다. 둘째, 개인 또는 집단을 약물남용으로 몰아가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빈민지역문화, 빈곤가정, 불우가정, 정신적 압박을 주는 학교교육과정, 건전한 여가선용시설의 미비 등이 이들을 약물남용으로 내모는 요인들이다(최일섭 외, 1995).

또한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약물남용경험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통제와 연관성이 높았으며 음주는 모두 약물에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최근 청소년의 음주경험은 전체 학생의 61.8%가 경험이 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다. 20대를 알콜 중독자가 늘고 있는 것도 청소년 음주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9).

## 제 2 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 1. 청소년 약물남용의 동향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는 최근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와 퇴폐 풍조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 전래의 건전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가족 및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는 마약류 남용과 이와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는 한편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제화, 다변화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마약류의 남용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특히 인격형성 단계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과 학생에 의한 마약류 남용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기정, 2000).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경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전국민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마약퇴치에 성공한 국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마약문제도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을 남용하다 검거되는 청소년의 수가 매년 5천명을 웃돌고 있어 경계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도시화의 추구에 따라 그 부산물로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 오염원인 약물남용 문제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본다. 최근에 남용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에는 술, 담배를 비롯하여 본드, 가스 등의 흡입제, 진정제, 환각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있으며, 흔히 술, 담배 등은 일반적으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술, 담배 소비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국가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약물남용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히 대처해 나가야 할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표 4-6)와 같이 1989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어서 1991년도, 1993년도, 1996년도, 1999년도에 연구용역사업으로 각각 시행되었고 2003년 이후 시정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표 4-6)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시행 년도	연구 사업 명	연구 기관
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연세대 보건대학원(체육청소년부)
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학회(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문화체육부)
1999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리서치(주)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표 4-7)는 청소년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청소년백서(2001)에서 제공한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자료와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이었다. 담배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로, 술의 경우 사용경험은 높지만 습관적으로 사용도는 낮은데 반해, 담배는 술보다는 가용경험이 낮지만 습관적 사용도는 매우 높은 약물이다.

(표 4-7) 분야별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실태

(단위 : %)

구분	학교 청소년					근로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89	'91	'93	'96	'99	'89	'91	'93	'96	'99	'89	'91	'93	'96	'99
술	48.0	52.8	57.5	71.3	60.2	75.5	82.4	77.6	95.2	91.0	93.1	82.6	91.4	90.2	92.8
담배	33.1	29.0	22.3	28.1	35.4	28.2	36.4	39.1	37.3	53.0	96.1	86.6	93.7	95.5	93.0
수면제	5.9	1.8	4.7	5.3	4.2	29.7	6.6	10.0	11.2	3.0	25.4	8.2	19.2	11.6	16.5
각성제	29.7	6.6	10.0	13.8	-	37.3	3.6	8.9	15.0	-	34.8	6.8	10.5	16.1	-
본드	4.4	2.5	1.5	3.3	1.5	6.7	3.6	2.4	3.6	2.1	47.0	45.9	48.7	68.8	52.1
가스	-	1.5	1.4	3.7	1.0	-	2.8	4.2	5.3	4.2	-	32.9	43.7	58.0	28.1
대마초	1.9	0.8	0.9	0.5	0.9	1.7	1.5	0.9	1.1	0	28.5	6.9	12.3	6.3	24.2
마약	0.7	0.6	0.2	0.3	-	0.9	0.6	0.2	0.6	-	9.4	7.2	0.8	1.8	-
필로폰	0.7	0.4	0.5	0.2	0.8	1.4	0	1.3	0.5	0	9.6	5.6	1.5	4.5	7.1

자료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서 가장 많은 사용 추세에 있어서 영양상태에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음주와 흡연은 그 주요성분인 알코올이나 니코틴의 약리작용 뿐만 아니라, 음식의 섭취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편식습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이면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청소년

시절에는 그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10-19세의 청소년 음주와 흡연은 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 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은 각성제, 수면제, 진해제, 신경안정제, 본드, 부탄가스, 신나인데 이 약물들의 사용경험은 5-10% 내외이다. 대마초, 필로폰, 마약, 크렉, 코카인, 누바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소년원 청소년의 경우는 상당수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같은 불법마약들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문화관광부, 2001).

(표 4-8)의 연도별 성별 약물사용 실태를 보면,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대부분의 약물에 대해서 사용경험이 높았으나, 각성제, 수면제의 경우는 여자가 사용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약물 중에서 담배의 경우는 남자 42.9%, 여자 19.3%로 남자의 흡연비율이 여자보다 2.2배나 많았으며 본드와 가스의 경우도 여자보다 남자의 흡입경험이 두 배 이상 많았다(문화관광부, 1999).

(표 4-8) 연도별 성별 약물사용 실태

(단위 : %)

구분	남자				여자				계			
	89년	91년	93년	96년	89년	91년	93년	96년	89년	91년	93년	96년
술	72.4	-	63.0	74.0	43.7	-	53.0	69.5	61.1	61.8	59.7	71.8
담배	66.5	-	42.3	42.9	16.0	-	11.9	19.3	46.0	38.6	26.9	29.6
수면제	11.0	3.6	6.1	5.3	5.3	1.9	5.6	6.0	8.8	2.8	5.8	5.7
각성제	29.7	8.6	6.8	7.8	28.1	9.8	9.2	13.5	29.2	9.2	8.0	11.0
본드	2.03	-	6.2	6.4	3.7	-	1.4	2.6	13.8	9.0	3.9	4.3
가스	-	-	6.4	6.0	-	-	1.6	2.6	-	6.3	4.0	4.1
대마초	11.4	-	1.9	1.4	1.6	-	0.3	0.4	7.6	2.9	1.1	0.8
마약	3.6	-	0.3	0.4	1.1	-	0.1	0.3	2.6	1.6	0.2	0.4
필로폰	3.9	-	0.6	0.2	1.0	-	0.7	0.2	2.8	1.6	0.7	0.2

자료 :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백서」.

그러나 최근 여학생의 흡연이 급증하고 있는데 1995년대비 2000년 자료를 보면 남자 중, 고등학생 흡연율은 고등학교 3학년 기준 33.2%에서 37.9%로 증가한 반면, 여자 중, 고등학생 흡연율은 고등학교 3학년 기준 5.6%에서 1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청소년백서, 2001) 최근 여학생의 높은 흡연률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9)는 마약사범 단속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4-9)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

(단위 : 명, %)

연도	'96	'97	'98	'99	'2000	'2001	
사범별명	계	6,189 (114.2)	6,947 (112.2)	8,350 (120.2)	10,589 (+26.8)	10,304 (-2.7)	10,102 (-2.0)
마약	1,235 (108.8)	1,201 (97.2)	892 (74.3)	923 (+3.5)	954 (+3.4)	661 (-30.7)	
대마	1,272 (83.9)	1,301 (102.3)	1,606 (123.4)	2187 (+36.2)	2284 (+4.4)	1482 (-36.5)	
향정	3,682 (133.1)	4,445 (120.7)	5,852 (131.7)	7,479 (+27.8)	7,066 (-5.5)	7,959 (+12.1)	

주 : ( )안은 증감율임. 자료 : 대검찰청(2002).

최근 청소년층의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은 1999년 574명에서 2000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4.8%를 점유하고 있어 청소년층의 마약류 남용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1).

2000년도의 청소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17세가 0.4%, 10대 후반인 18-19세가 5.7%, 20-24세가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은 0.2%로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층의 마약류 남용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청소년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14-15		16-17		18-19		20-24		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96	-	-	12	2.6	67	14.4	387	83.0	466	100
1997	-	-	11	2.2	56	11.0	440	86.8	507	100
1998	1	0.2	11	1.7	65	10.2	562	87.9	639	100
1999	-	-	10	1.7	40	7.0	524	91.3	574	100
2000	-	-	2	0.4	28	5.7	461	93.8	491	100

자료 : 대검찰청(2001).

(표 4-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도의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342명이며 16-19세가 1,161명으로 49.6%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들 연령층이 환각물질흡입의 주류 계층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19세 이하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1,280명으로 전체사범 2,342명의 54.7%를 차지하고 있어 환각물질이 10대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각물질이 다른 약물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데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표 4-11)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15세 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 29세	30세 이상	연령 미상	계
1996	31 (0.4)	600 (8.6)	1,518 (21.7)	1,590 (22.7)	1,189 (17.0)	615 (8.8)	1,212 (17.3)	100 (1.4)	148 (2.1)	7,003 (100)
1997	21 (0.3)	416 (6.7)	1,322 (21.4)	1,464 (23.7)	966 (15.7)	625 (10.1)	1,097 (17.8)	174 (2.8)	90 (1.5)	6,175 (100)
1998	8 (0.2)	206 (5.3)	685 (17.5)	766 (19.6)	625 (16.0)	376 (9.6)	967 (24.7)	182 (4.6)	96 (2.5)	3,911 (100)
1999	10 (0.4)	161 (5.6)	414 (14.5)	482 (16.8)	413 (14.4)	310 (10.8)	835 (29.1)	199 (6.9)	44 (1.5)	2,868 (100)
2000	1 (0.1)	118 (5.0)	362 (15.5)	333 (14.2)	287 (12.3)	179 (7.6)	841 (35.9)	185 (7.9)	36 (1.5)	2,342 (100)

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2001).

19세 이하 단속실적에서 보듯이 1996년 5,543명에서 1999년도 1,790명으로 67.7% 크게 감소하였고, 2000년도에는 1,280명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하였다. 이는 검찰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및 「청소년보호법」의 강력한 시행과 관련하여 학원폭력, 유흥업소, 판매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 등으로 범죄환경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최근 단속실적은 감소했으나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문화관광부, 2001).

### 3. 약물남용결과 단계별 진행과정 및 증상

#### 1) 약물남용결과 단계별 진행과정

약물 중독자도 처음엔 약물을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지 중독이 되려고 약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심리는 묘해서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로 인해 약물의 사용과 자기 자신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연결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

로 습관 중독성 물질의 매력이며, 인간이기에 이러한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 의한 결과로서 약물에 의한 단계별로 나타나는 경향은 다음과 같다(장혜수, 2000).

첫째, 배우는 단계(The learning phase)로서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약물을 처음 접하고 약물이 일반적으로 행복감과 강력한 힘 같은 감정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탐색적인 단계는 초기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고 싶은 영향력을 끼친다.

둘째, 찾는 단계(The seeking phase)로서 이 단계에 오면 약물로 인한 감정변화가 자신의 사회생활에 연관되기 시작된다.

셋째, 해로운 의존단계(The harmful dependence phase)로서 이 단계는 행복한 정신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약물사용으로 인한 인생의 손실로 고통받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특정 시기에만 약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이러한 약물이 가족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족내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의존이 진행됨에 따라 도덕적인 규범이나 가족가치를 저버리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약물사용의 조절능력 상실을 경험한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지속되며, 감정적인 상처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약물복용을 통한 행복감을 얻는다. 이에 따라 중독자는 분노와 저항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성이 증가하며, 그의 언행이 건강, 정서적인 안정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왜곡되기 시작한다.

넷째, 치명적인 단계(The using to feel normal phase)로서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해왔던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은 것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해 심한 우울, 불안과 심한 금단현상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약물 진행과정을 볼 때 초기에는 나름의 이유 하에 일회적으로 사용된 약물이 반복되면서 습관화, 다양화, 강화의 상태로 되어 종국에는 약물의 노예 상태로 전락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초기의 예방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박종문, 1996).

## 2) 청소년 약물사용 결과 징후와 증상

청소년들이 약물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징후와 증상을 예측할 수 있다(장혜수, 2000).

첫째, 기분의 잦은 변화로서 정서를 다루는데 무능력해져서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새로운 즐거움도 없으며 생활이 고통스럽다.

둘째, 쉽게 화를 낸다. 약물의존에 이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공포와 혼란을 느낀다. 분노는 흔히 그러한 내면의 공포를 감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감정으로써,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공포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취약함을 느끼도록 하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것이 쉽다.

셋째, 방어로서 약물 의존자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 그들은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사용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투사기제를 사용한다. 약물사용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자신은 약물사용으로 인한 고통을 직면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생각될 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난할 것이다. 비난은 비판, 위협, 판단, 고소 등의 형태를 띤다. 청소년이 약물에 더욱더 관여할수록 약물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이윤로, 1997).

넷째, 반항으로 약물의존 청소년은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인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하며, 책임을 지는 것에 저항한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데도 유아적인 무능력을 보인다. 저항과 무책임은 또한 약물문제라는 현실을 다루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섯째, 알리바이, 거짓말, 속임수, 정보에 대한 허위진술이 약물을 얻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고, 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석이 잦아지며 학교개방, 학부모 면담, 징계, 경고와 같은 학교의 일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

여섯째, 일시적 기억상실로서 약물로 인한 건망증이 나타나는데 보통 때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전혀 기억을 못한다.

일곱째, 운동, 학업성취, 음악, 특정친구, 휴일,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힘을 주지 않는 솔선성의 상실로서 삶에 대한 갈망을 잃기 시작하여 에너지가 떨어지고 잠이 늘거나, 에너지나 기분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 교회, 기념일 등의 과거에는 매우 중요하던 가족 기능으로부터도 철회하기 시작한다.

여덟째, 학업성취도 저하로서 약물을 하는 청소년은 학교 성적이 서서히 저하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떨어지기도 한다. 약물사용은 학업동기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특정 약물의 향정신성 특성이 학습을 방해하기도 한다.

아홉째, 고립과 비밀로서 청소년의 신변에서 약물이 발견되며, 남의 눈치를 자주 살피며,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하여 긴 시간을 자신의 방 안에서 지낸다. 친구에도 변화가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로 또래집단을 바꾸며, 부모

나 주위 성인들에게 이 친구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과는 멀어져가며, 부모나 주위 성인들에게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감춘다.

열 번째, 신체적 증상으로서 초기의 신체적 징후는 위생에서 찾을 수 있다. 약물사용은 개인적인 자부심을 상실하게 하며, 그 결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개인적인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목욕을 덜하며, 모발, 의복, 피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체중이 심하게 변한다. 약물사용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약물관련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증가한다. 호흡문제, 기관지염, 만성적 기침, 감기 등은 약물 사용이 청소년의 면역체계 효율성을 저하시킴을 보여준다.

열한번째, 법적 문제로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약물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소유,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화재, 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강도, 강간, 폭행, 배회 등을 들 수 있다.

열두번째, 집안 물건의 분실로서 가족구성원의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은 약물문제가 있다는 신호로써 그 중 첫 번째 주목 할 만한 신호는 술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중독과정이 악화됨에 따라 청소년은 약물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게 된다. 집에서 훔치거나 자신이 중요시하던 물건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온다. 또한 약물 구입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다.

#### **4. 미국, 일본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 **1. 미국**

##### **1) 약물남용 경향**

미국에서는 코카인이 주로 남용되고 있으며, 마약류 사용자가 1962년에는 약 4,000,000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약 13,600,000명으로 약 3배이상 증가했으며, 12-15세 아이의 청소년 10명 중 1명(9.9%)은 불법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18-25세 사이의 청소년은 16.1%가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미국 마약남용경향에 대하여 약물정책 정보센터(Drug policy Information Clearing house)에서는 보건복지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와 국방부(The US. Department of Defense)와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등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가정주부, 학생, 군인 및 수험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노숙자와 같이 주거가 일정치 않은 몇몇의 집단은 표준적인 조사기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NHSDA)

(표 4-12)에서 12세 이상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는데 1991年 NHSDA가 실시하였는데 1997년에 12세이상 인구의 64%(1390만)가 지난 한달 동안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자-B), 1997년에 12세 이상 인구의 0.7%(150만)가 지난달에 적어도 한번은 crack을 포함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CONCDP)

(표 4-12) 12세이상 약물남용경향(1979-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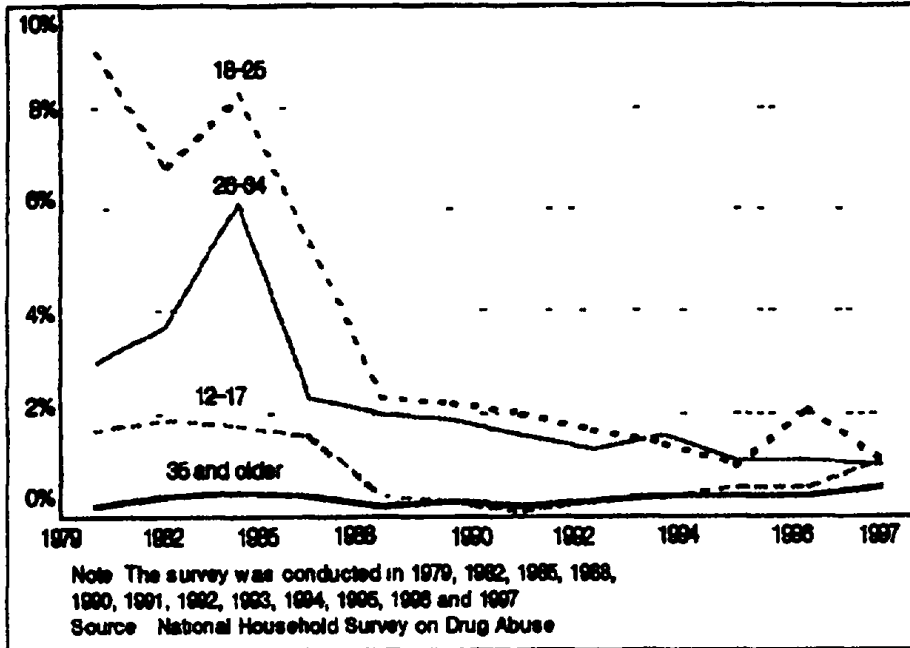
연령별 \ 년도	1979	1985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2~17세											
평생	318%	274%	228%	209%	184%	151%	164%	203%	222%	221%	237%
지난해	243	20.7	149	141	13.1	104	119	15.5	180	167	188
지난달	163	132	81	71	58	53	57	82	109	90	114
18~25세											
평생	690%	629%	581%	549%	539%	50.9%	50.2%	46.3%	458%	48.0%	45.4%
지난해	23.0	37.4	291	261	26.6	24.1	242	24.6	25.5	26.8	253
지난달	208	253	179	150	154	131	136	133	142	15.6	147
26~34세											
평생	490%	595%	612%	598%	589%	579%	582%	561%	548%	531%	508%
지난해	230	26.2	191	184	155	15.4	146	148	146	146	143
지난달	208	23.1	147	109	10.0	11.4	95	85	83	84	74
35세이상											
평생	118%	181%	200%	225%	237%	24.4%	261%	277%	279%	29.0%	315%
지난해	39	55	51	52	5.5	4.4	55	57	5.0	53	61
지난달	28	39	23	3.1	3.4	2.5	30	32	28	29	36
12세이상											
평생	313%	344%	340%	342%	341%	33.3%	342%	344%	342%	348%	356%
지난해	175	163	124	117	111	97	103	10.8	107	108	112
지난달	14.1	121	77	6.7	66	58	59	60	61	61	64

資料 : NHSDA

## 2) 연령별 코카인, 마리화나 사용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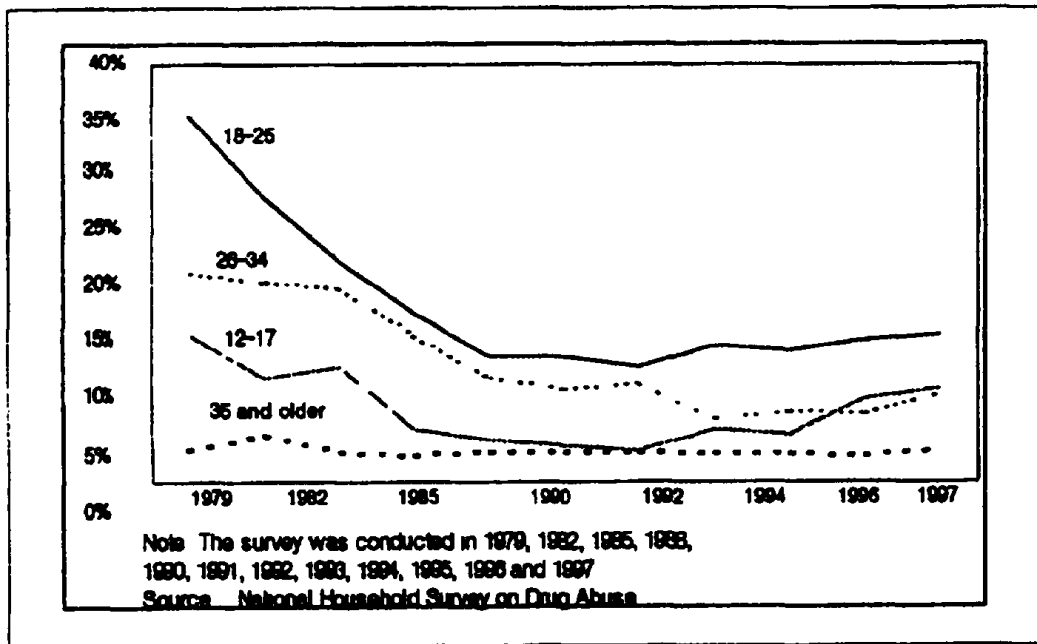
(1) 1991年 이후로는 crack을 포함한 코카인 사용의 증가추세는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에 12~17세가 1.9%, 1979년에 18~25세가 99%, 1985년에 26~34세가 6.3%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표 4-13) 연령별 지난달 코카인 사용



(2) (표 4-14)에서 1997년에 12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난달에 적어도 한번 마리화나를 사용한 미국내 비율은 5.1%(1,110만)였고, 이것은 1996년부터 통계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 달간 마리화나의 사용은 12~17세가 14.2%, 18~25세가 35.6%를, 1979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26~34세의 경우에는 19.7%로 역시 1979년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다.(ONDSP)

(표 4-14) 연령별 지난달 마리화나 사용



### 3) 중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

미국내 중, 고등학생 중 8학년, 10학년, 12학년을 (표 4-15)와 같이 표본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표 4-15) 8, 10, 12학년 약물남용 조사대상 학생수

학년별 \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8학년	17,500	18,600	18,300	17,300	17,500	17,800	18,600	18,100	16,700
10학년	14,800	14,800	15,300	15,800	17,000	15,600	15,500	15,000	13,600
12학년	15,000	15,800	16,300	15,400	15,400	14,300	15,400	15,200	13,600

資料 :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the university of Michigan

평생동안 사용해 본 약물의 종류로는 알콜과 담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표에서는 이들을 제외시켰다. 금지 약물외에도 1998年 대비 1999年에 10학년생의 약물남용이 마리화나, 대마초가 1.3%, 흡입제가 1.3% 각각 증가되었고 MADA가 12학년이 2.3% 증가한 것 외에는 대부분 소수점 이하의 증가 내지는 감소를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최고율을 나타냈다가 감소내지 불변동으로 나타나 미국정부의 약물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6) 평생 약물 사용을

약물, 학년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98-99 change
금지약물										
8학년	187	206	225	257	285	312	294	290	283	-07
10학년	306	298	328	374	409	454	473	449	462	+13
12학년	441	407	429	456	484	508	543	541	547	+06
마리화나를 제외한 금지약물										
8학년	143	156	168	175	188	192	177	169	163	-06
10학년	191	192	209	217	243	255	250	236	240	+04
12학년	269	251	267	276	281	285	300	294	294	00
흡입제를 포함한 금지약물										
8학년	285	296	323	351	381	394	381	378	372	-06
10학년	361	362	387	427	459	498	509	493	499	+06
12학년	476	444	466	491	515	535	563	561	559	-02

연도 약물 학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98-99 change
마리화나, 대마초										
8학년	102	112	126	167	199	231	226	222	220	-02
10학년	234	214	24.4	304	341	398	423	396	409	+13
12학년	367	326	353	382	417	449	496	491	497	+06
흡입제										
8학년	176	174	19.4	19.9	216	212	210	205	197	-08
10학년	157	166	175	180	190	193	183	183	170	-13
12학년	176	166	174	177	174	166	161	152	154	+02
아질산염										
8학년	-	-	-	-	-	-	-	-	-	-
10학년	-	-	-	-	-	-	-	-	-	-
12학년	16	1.5	14	17	15	18	20	27	17	-10
환각제										
8학년	32	38	39	43	52	59	5.4	4.9	48	-01
10학년	61	64	68	81	93	105	105	9.8	97	-0.1
12학년	96	92	109	114	127	140	151	141	137	-04
LSD										
8학년	27	32	35	37	44	51	47	41	41	00
10학년	56	58	62	72	84	94	95	8.5	85	00
12학년	88	86	103	105	117	126	136	126	122	-04
LSD를 제외한 환각제										
8학년	1.4	1.7	1.7	2.2	2.5	3.0	2.6	2.5	2.4	-0.1
10학년	2.2	2.5	2.8	3.8	3.9	4.7	4.8	5.0	4.7	-0.3
12학년	3.7	3.3	3.9	4.9	5.4	6.8	7.9	7.1	6.7	-0.4
PCP										
8학년	-	-	-	-	-	-	-	-	-	-
10학년	-	-	-	-	-	-	-	-	-	-
12학년	2.9	2.4	2.9	2.8	2.7	4.0	3.9	3.9	34	-0.5
MDMA										
8학년	-	-	-	-	-	3.4	3.2	2.7	2.7	00
10학년	-	-	-	-	-	5.6	5.7	5.1	6.0	+09
12학년	-	-	-	-	-	6.1	6.9	5.8	8.0	+2.9
코카인										
8학년	23	1.9	1.9	3.6	4.2	4.5	4.4	4.6	4.7	+0.1
10학년	4.1	3.3	36	43	5.0	6.5	7.1	72	7.7	+0.5
12학년	7.8	6.1	61	59	6.0	7.1	8.7	9.3	9.8	+0.5

연도 약물, 학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98-99 change
<b>CRACK</b>										
8학년	1.3	1.6	1.7	2.4	2.7	2.9	27	3.2	3.1	-0.1
10학년	1.7	1.5	1.8	2.1	2.8	3.3	3.6	39	4.0	+0.1
12학년	3.1	2.6	2.6	70	3.0	3.3	3.0	4.4	4.8	+0.2
<b>기타 코카인</b>										
8학년	2.0	2.4	2.4	3.0	3.4	3.8	3.9	37	3.8	+01
10학년	3.8	3.0	3.3	3.8	4.4	5.5	6.1	64	6.8	+04
12학년	7.0	5.3	5.4	5.2	5.1	6.4	8.2	8.4	8.8	-0.4
<b>헤로인</b>										
8학년	1.2	1.4	1.4	2.0	2.3	2.4	2.1	2.3	2.3	0.0
10학년	1.2	1.2	1.3	1.5	1.7	2.1	21	2.3	2.3	0.0
12학년	0.9	1.2	1.1	12	1.6	1.8	21	2.0	2.0	0.0
<b>기타 마취제</b>										
8학년	-	-	-	-	-	-	-	-	-	-
10학년	-	-	-	-	-	-	-	-	-	-
12학년	6.6	6.1	6.4	6.6	7.2	8.2	9.7	9.8	10.2	+04
<b>암페타민</b>										
8학년	10.5	10.8	11.8	12.3	13.1	13.9	12.3	11.3	10.7	-0.6
10학년	13.2	13.1	14.9	151	17.4	17.7	17.0	16.0	15.7	-0.3
12학년	15.4	13.9	15.1	15.7	15.3	153	16.5	16.4	16.3	-0.1

資料 :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the university of Michigan

#### 4) 교도소 재소자의 약물남용 경향

1997年 미 교정시설에 있는 피수형자에 대한 사법통계사무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따르면 투옥되기 전의 형무소 피수형자들의 약물 사용은 1991年과 1997年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 한 달 동안 금지약물을 사용한 피수형자의 비율은 1991年の 50%에서 1997年 57%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교정시설에 들어오기 한 달 전까지 코카인이나 crack을 사용했던 피수형자의 비율은 1991年の 32%에서 1997年에 39%까지 증가하였다. (표 4-17)

피수형자들 사이에서의 약물 사용경향은 약물 종류에 따라서 가지각색이다.

1997년에 나이든 죄수들(36세 이상)이 젊은 죄수들에 비해 2-10배 가량 더 코카인 사용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차이는 디트로이트와 워싱턴에서 가장 심해서, 50%에 가까운 나이든 수형자들이 양성반응을 보인 반면, 젊은 수형자들은 약 5%만이 코카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Crack 코카인은 일반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4-17) 죄수형자 약물사용비교 (1991-1997)

약물종류	수감전 한달동안		수감당시	
	1991	1997	1991	1997
금지약물	50%	57%	31%	32%
마리화나	32	39	11	15
코카인/크랙	25	25	14	15
헤로인/마취제	10	9	6	6
진통제	4	5	1	2
흥분제	7	9	3	4
환각제	4	44	2	2

資料 : Survery of Inmates in state Correctional Facilities.

## 2. 일본

### 1) 최근동향

각성제나 신나로 검거된 사람의 숫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고, 특히 1960년대 이래 제2의 약물남용시대라고 할 만큼 감소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의 밀수마약이 급속하게 퍼져나가 길거리에서도 약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층도 주부, 학생, 사회원 등 이제까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자들까지 약물남용으로 중독자가 되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피로, 해외여행이나 레저의 다양화 등으로 약물남용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일본에서 주종을 이루는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연간 20000여명이 검거되었다가 98년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야쿠자 등 조직범죄집단이 마약류 밀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마약류 남용후 살인 3명, 살인미수 2

명, 강도 8명, 강간 2명, 방화 8명, 폭행상해 21명, 공갈 8명 등 강력범죄가 격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일본의 품목별 압수량

품목 (단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헤로인	277	9.4	25.1	12.1	15.2	10.2	7.7	4.0	6.0
코카인	13.7	658	22.5	31.6	26.0	20.0	200	37.1	25.5
대마수지	2.7	14.2	27.7	11.1	29.8	97.0	97.0	145.1	107.4
건조대마	446.0	189.2	2172	249.3	612.0	290.1	290.1	172.7	1551
각성제	219.0	279.1	128.9	166.2	969	313.7	313.7	652.2	1729

資料 : 大檢察廳, 마약류 범죄백서

## 2) 약물 남용 실태

### (1) 메스암페타민 및 각성제

98년도 메스암페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171.9kg 대비 3배이상 증가한 549.0kg이며, 검거인원은 16,88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834명(14.4%) 감소하였다.

(표 4-19) 일본의 메스암페타민 사범의 검거인원 및 압수량

구분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검거인원(명)	15,252 (6,401)	14,655 (6,329)	17,101 (7,377)	19,420 (7,912)	19,722 (7,817)	16,888 (7,204)
압수량(kg)	96.2	3133	85.1	6508	171.9	549.0

資料 : 大檢察廳

※( )는 야쿠자 조직원수

메스암페타민 밀수, 밀매는 야쿠자의 중요 자금원으로 98년도 검거된 인원이 7,204명으로 전체사범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각성제 남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1991년(943명)부터 1995년(1,079명)까지는 우려할 만한 증가는 보이지 않다가 1996년에 1,436명, 1997년에 1,602명으로 1995년 기준으로 33%, 48%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중고생들의 각성제사범 남녀비율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995년까지는 검거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표 4-20) 일본 중고생의 각성제사범 검거

연도별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1991		419	524	943
1992		481	520	1,001
1993		486	494	980
1994		381	446	827
1995		539	540	1,079
1996		760	676	1,436
1997		857	745	1,602

資料 : 日本厚生省 海上保安廳의 統計資料 및 平成10年版 警察白書

각성제의 일반사범은 1980년에 20,200명에서 1984년까지 매년 약 10%미만으로 증가하다가 1985년부터는 계속 감소하여 1994년에는 14,896명으로 1980년에 비해 26%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어 제3의 각성제남용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

(표 4-21) 일본 연도별 각성제 사범추이

구분	연도	1970	1980	1984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각성제 사범수		1,682	20,200	24,372	15,267	16,330	15,311	15,495	14,896	17,364	19,420	19,722

資料 : 日本후생성

## (2) 기타 마약류 남용실태

메스암페타민 다음으로는 대마초와 헤쉬쉬인데 이와 관련한 마약사범도 강력한 단속으로 검거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압수량은 1997년 240.9kg에서 1998년에는 27%가 증가한 305kg으로 나타났으며 코카인, 헤로인, 아편의 검거인원과 압수량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일본 마약류 사범검거인원 및 압수량 추이

구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대마초/ 헤쉬쉬	검거인원	1,933	2,003	1,418	1,228	1,104	1,236
	압수량(kg)	648.9	189.1	339.8	297.60	240.9	305
코카인	검거인원	116	130	111	78	59	93
	압수량(kg)	25.7	20.2	360	30.0	25.3	204
헤로인	검거인원	101	72	71	36	44	61
	압수량(kg)	14.1	102	7.6	40	6.0	3.6
아편	검거인원	126	214	159	135	140	132
	압수량(kg)	12.8	30.7	32.8	31.1	39.0	11.0

資料 : 大檢察廳

## ● 제5장 약물남용후 비행진행실태 및 약물관련법규

### 제 1 절 약물남용에 의한 청소년비행

#### 1. 비행청소년의 분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보통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범에 잘 적응하지만 일부의 청소년들은 특수한 몇 가지의 원인에 의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제반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비행청소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이우영, 2000).

청소년의 비행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한 동일한 문화 속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과거의 비행행동이 현재 또는 미래에는 비행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문화에서는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한편 청소년의 비행은 소년과 소녀가 미성년자로서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들이 범법자로서 성장하기보다는 준법하는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배려에서 출발한다. 15세기부터의 영국의 관습법에서 소년은 성인을 재판하는 법정과는 다른 특수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케 하는 대신에 교화를 통하여 개과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성인범죄와 청소년 비행을 규제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오차, 2000).

규범적 의미의 소년비행이란 12세부터 20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소년법 상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범죄행위, 범죄소년 : 14세부터 20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이 범하는 형벌법령 위반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자를 범죄소년이라 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2) 촉법행위, 촉법소년 : 12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이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제3항).

3) 우범행위, 우범소년 :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의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였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려는 성향 때문에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2세 이상 소년의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행위자를 우범소년이라고 한다(소년법 제 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박상기 외, 1999).

이와같은 소년의 비행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소년비행을 일반 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2. 청소년비행과 청소년범죄의 개념

원래 청소년범죄라는 용어는 B.C 2270년 함무라비법전에 청소년범죄에 관한 형이 게재되면서 오늘날까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청소년범죄란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범행가능성까지 포함한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하여 비행청소년이라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 또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각각 동의어로 혼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상 소년비행은 소년범죄에 우범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는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법제에 다른 구별일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도 양자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우범은 범리적 위험성이나 잠재적 비행성을 지칭할 뿐 현실적으로는 범죄나 비행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오차, 2000).

청소년 비행은 공식적인 비행과 숨은 비행으로 구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알려지고 있는 청소년 비행은 그것을 저지른 후 적발되었거나 체포된 경우로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비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 검찰 및 경찰의 공식적 통계기록에 의존하여 비행 청소년의 범죄 유행 및 그 발생빈도 등에 관해 논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초, 숨은 비행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사용되면서부터 비행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숨은 비행의 발생 빈도, 정도 및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숨은 비행이란 실제로 저질렀지만 경찰이나 검찰 및 법원과 같은 공식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비행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백서(2001)와 마약류범죄백서(2001)를 근거로 최근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도 소년범죄는 '96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나, 전체범죄 증가율 15.4%보다는 낮은 편이다.

(표 5-1) 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총범죄	2,018,296 (121.5)	2,117,759 (127.5)	2,341,431 (141.0)	2,400,485 (118.9)	2,329,134 (115.4)
소년범죄	146,986 (135.7)	164,182 (151.0)	161,277 (148.9)	150,821 (102.6)	151,176 (102.8)
구성비율(%)	7.3	7.8	6.9	6.3	6.5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2001).

### 3. 청소년 약물남용에 의한 비행실태

약물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를 보면

첫째, 청소년들의 약물의 최초 사용의 경우이다. 청소년들의 약물의 최초의 사용경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것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부모의 음주, 흡연태도나 부모의 관심도 역시 자녀의 약물남용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친구들과의 불량교우집단에 가입하여 그 힘이 상승되어 집단 패싸움이나 금품갈취, 약물남용 등 청소년의 친구집단은 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의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행이 2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주의가 16.1%, 유흥비 충당 등 이득범행이 15.6%, 취중호기심이 6.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약물남용과 청소년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46,986 (100)	164,182 (100)	161,277 (100)	150,821 (100)	151,176 (100)	
이 욕	소 계	26,030 (17.0)	22,985 (14.0)	26,949 (16.7)	24,294 (16.1)	23,595 (15.6)
	생활비	2,474 (1.7)	1,947 (1.2)	2,612 (1.6)	2,548 (1.7)	2,045 (1.4)
	유홍비	9,472 (6.4)	8,686 (5.3)	9,579 (5.9)	8,732 (5.8)	8,623 (5.7)
	허영사치심	2,471 (1.7)	1,181 (0.7)	1,096 (0.7)	889 (0.6)	827 (0.5)
	기 타	11,613 (7.9)	11,171 (6.8)	13,662 (8.5)	12,125 (8.0)	12,100 (8.0)
사행심	1,383 (0.9)	1,157 (0.7)	1,080 (0.7)	965 (0.6)	858 (0.6)	
원한 분노	1,870 (1.3)	2,359 (1.4)	1,806 (1.1)	1,628 (1.1)	1,650 (1.1)	
취중(호기심)	15,637 (10.6)	15,057 (9.1)	13,805 (8.6)	9,305 (6.2)	9,428 (6.2)	
우발적	34,537 (23.5)	35,956 (21.9)	40,254 (25.0)	40,887 (27.1)	41,573 (27.5)	
유 욱	1,596 (1.1)	1,914 (1.2)	2,354 (1.4)	1,945 (1.3)	1,701 (1.1)	
가정불화	153 (0.1)	92 (0.1)	113 (0.07)	150 (0.1)	163 (0.1)	
부주의	19,925 (13.6)	22,035 (13.4)	21,417 (13.3)	22,849 (15.1)	24,320 (16.1)	
현실불만	1,693 (1.2)	1,590 (1.0)	1,290 (0.8)	1,281 (0.8)	1,067 (0.7)	
기 타	44,162 (30.0)	61,037 (37.2)	bn52,209 (32.3)	47,517 (31.5)	46,821 (31.0)	

주 : ( )안은 점유율임. 이욕난의 '기타' 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2001).

2000년 학생범죄의 경우도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27,479명(29.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7,622명(19.2%), 이욕 10,481명(11.4%)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는 유홍비 조달이 3,562명으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91,750	103,292	99,625	91,942	91,923
이 목	소 계	16,247	13,346	13,200	11,189	10,481
	생활비	671	658	707	717	540
	유흥비	6,611	4,886	4,323	3,724	3,562
	허영사치심	1,324	775	598	404	367
	기 타	7,641	7,027	7,572	6,344	6,012
사행심		678	711	557	496	390
원한 분노		933	1,576	1,085	919	889
취중(호기심)		9,638	10,486	8,776	5,737	5,910
가정불화		65	57	59	92	108
유 흥		852	1,150	1,305	1,029	923
우발적		21,935	25,821	26,729	27,587	27,479
현실불만		1,328	1,825	1,175	1,075	772
부주의		15,038	18,203	16,717	17,312	17,622
기 타		25,036	30,117	30,022	26,506	27,349

주 : ( )안은 점유율임. 이목난의 '기타' 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목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2001).

둘째, 약물사용 후 비행과의 연계성의 문제로 (표 5-4)는 각 약물별로 그 약물의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특정 비행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약물 사용 중 비행행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것은 본드와 가스로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한 뒤 다른 비행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1/3이 훨씬 넘는 39.1%로 나타났다. 또한 본드나 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비행행위는 폭력행위였고(21.7%), 다음은 강, 절도(17.4%)로 나타났다. 한편 알약 종류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의 14.7%가 알약을 사용 중에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응답자 전체가 언급한 비행은 폭력행위였다. 술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취중 비행 응답자 7.4% 가운데 폭력행위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약물을 하는 동안에 저질러지는 비행행위 가운데 폭력행위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약물이 지니는 상승, 흥분효과로 인해 폭력성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조사 결과(1997)를 보면 약물을 사용 후 비행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229명 중 45.5%인 102

명이 비행행위를, 나머지 55.5%는 비행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행위 유형별로는 성과 관련된 행위가 17%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 8.7%, 강도 7.4%, 절도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사용 후 절반 정도의 사용자가 비행행위를 하며, 그 행위결과가 범법행위이고 약물이 비행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없는 밝은사회,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메스암페타민 사범들에 대하여 실시한 1989년 9월의 설문조사에 의하며 수형자인 메스암페타민사범 210명 중에서 69명(36.1%)이 약물을 남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범죄의 유형으로는 절도(39.1%), 폭행(37.7%), 각종 과실범(15.9%), 매음(11.6%), 부녀자희롱(8.7%), 강도, 강간, 방화(각 4.3%)등이 있으며 특히 소년수형자의 경우에는 11명 전원이 메스암페타민을 남용한 상태에서 소매치기를 하였다고 한다. 한편 특히 요즈음 약물남용의 또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범행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범행 전에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소매치기를 대담하게 할 목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약물사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후의 반응에 대하여도 후회한다는 응답이 적은 것을 보면, 약물남용이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약물의 사용이 다른 범죄에 미치는 영향, 즉 약물사용이 어느 정도 타 범죄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약물관계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배동호, 1994).

(표 5-4) 각 약물별 비행경험

구 분	술	본드/가스	알약종류	대마류
없다	350 (92.6)	14 (60.9)	64 (85.3)	1
강, 절도	3 (0.8)	4 (17.4)	- -	- -
폭력행위	20 (5.3)	5 (21.7)	11 (14.7)	1
기타 비행행위	5 (1.3)	- -	- -	- -
총 계	378 (100.0)	23 (100.0)	75 (100.0)	2

\* 총사례수 10이하는 백분을 생략함. "청소년의 약물실태에 관한 연구(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셋째, 약물사용은 사용약물의 구입, 입수를 둘러싸고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게 되는 점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사용자들은 약물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직접 약물밀매행위에 가담하기도 하며,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매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공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중독자를 치료하여 이들이 중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밀매조직에 대한 단속의 강화는 한편으로 약물가격을 상승시켜 중독자들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삼의 범죄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사용자와 밀매자와의 약물거래에 있어서도 약물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약물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의존성이 강한 약물을 사용하는 자일수록 자주 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약물의 사용은 사용자의 범죄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도 아울러 인정되고 있다. 결국 범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또 약물의 사용은 다시 이들의 범죄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청소년 약물관련 규제 법규

### 1. 현행 약물규제법규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현행약물규제 법규의 범위는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첫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은 마약류의 오,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법 제2조 제1호)에 정의하고 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엽, 이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등(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 남용시 인체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것(동법 제2조 제4호)이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규제대상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5호).

이에 관한 금지행위와 처벌은 동법 제34조(일반행위의 금지)에서 마약류 사용, 수출, 재배, 원료, 종자, 종묘의 소지, 관리,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와 동법 제4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의 금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종전보다 처벌이 무거워졌다(동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 7호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교제, 투약, 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 수수, 조제, 투약, 교부한 자” 에게도 일반 범죄인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58조 제2항) 마약류사범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과 이들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 접착제, 및 음료와 부탄가스를 환각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지행위와 처벌은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탈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5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을 탈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5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제45조).

흡입사범은 대부분 청소년들인데 이들 흡입 청소년들이나 공급자를 동일하게 법정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좀더 관대한 차등형벌 내지 치료재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2조 제4항 가목에 술, 담배, 마약류와 환각물질 및 청소년 유해약물을 규정하고 있다. 유해약물의 결정기준은 ①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②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③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등을 발휘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는 약물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금지행위와 처벌에 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배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6)환각물질과 (7)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유해약물을 판매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50조 제3호). 그 외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제51조 제8호).

이상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 처벌되는 약물남용의 관련법규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최근의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의 통제력은 다 가질 수 없다. 기존의 법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긴 해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성사회의 각성과 적극적인 동참이 법률에 앞서야 한다.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5) 마약류 법령의 법정형 비교

구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1호	2호	3호	4호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조	위와 같음	1년 이상의 징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매매, 매매의 알선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장소 등 제공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자료 : 경찰청 마약류수사관계법령집(2003).

청소년 약물남용자의 경우 첫째는 학교, 가정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받고, 단순 약물남용자는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처벌위주의 법안보다는 선도나 치료재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형벌과 같은 사회적 처벌보다는 그들이 속한 학교나 가정, 치료기관에서 선도되어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환각상태에서 청소년이 비행을 행하였다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비습관성이고 약물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숙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미한 처벌이나 치료, 예방 가능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약물 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선진국에 비해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법자는 가능한 중한 형벌로서 사회 일반인이나 잠재적 범죄인을 위하여 약물남용을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벌은 위태롭게 하는 법의 가치와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형벌권의 남용으로서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형사정책연구원, 1993).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개인은 신체를 포함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해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약물사용을 비범죄화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집단적인 사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형벌을 줄이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사용행위를 경범죄로 하고 있고, 호기심이나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번 사용한 경우는 형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범죄화론이 반드시 개인을 보호하는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만 아니라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비행, 범죄에 빠져 사회공공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며, 판단력의 부족과 호기심으로 접한 초기 단계에서 약물관련 규제 법규를 통해 절제를 자극해주고 재활치료를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 2. 약물남용에 의한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청소년의 미성숙과 청소년비행의 환경론적 원인론에 기초하여 약물남용 청소년은 처벌보다는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보호주의 원칙이 우선 시 되어,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소년사범을 비롯한 비행소년 교정복지의 흐름이다. 이러한 이념적 취지에서 비행청소년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약물남용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소년 경찰을 중심으로 선도 보호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약물남용 비행소년을 소년 심판의 대상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거나, 검찰 스스로 선도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여 선도보호 하고 있다.

법원단계에서는 비행소년에 대해서 형법상의 제재수단인 형벌을 부과 할 수 있으나,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사건 자체를 보호 사건화 하여, 청소년 비행자의 성행의 교정을 통한 건전한 육성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호자위탁(1호처분), 단기보호관찰(2호처분), 보호관찰(3호처분), 소년보호시설(5호처분), 병원요양소(5호처분), 단기소년원(6호처분), 소년원송치(7호처분)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있다(이상현, 1997).

교정단계에서는 소년형벌 수형자를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그 외 소년보호 처분 중 소년원 송치 처분자는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을 중시하는 시설 내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 단기 보호관찰과 갱생보호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약물남용에 의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건전 육성과 보호라는 청소년비행자의 교정복지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자에 대한 보호육성과 사회재통합이라는 이념과 목표가 재정립되고, 현재의 검사선의 보다는 법원선의 제도의 도입이 요망되고 있다. 더욱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범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입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개입 시에도 개인단위의 처우뿐만 아니라, 환경단위의 처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적 개입은 물론이고 사적 개입도 활성화하는 개입의 주체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청소년문제론, 1996).

### 1)치료보호제도와 감호제도

치료보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 검사하거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 보호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치료보호제도는 1967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에서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89년

마약법 제50조, 대마관리법 제12조의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등에서 치료보호의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2000년 대통령령 제16979호인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규정’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보호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는 527명이 치료보호를 받았는데, 이 후 그 수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98년 이후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 동안 치료보호의 대상자가 사용한 마약류의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과 대마는 극소수에 불과했다(표 5-6)

(표 5-6) 중독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state of treatment care)

연도 \ 약물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마약	1	3	-	1	-	-	-	5	0	0	3	-
대마	2	1	1	-	-	-	2	10	1	0	9	23
향정	524	331	177	80	88	-	72	169	43	43	110	153
합계	527	335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176

자료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료기간은 대개는 1개월 이내로 단기 일차치료에 그치고 있다. 치료기관에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을 치료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치료기간이 단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의학적으로 해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한 3개월은 필요하므로 치료기간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도 치료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따라 치료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선포하는 한편, 자수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선회하여 先 예방, 단속과 後 치료, 재활이라는 「2+2」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전국의 23개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치료보호를 통해 1999년 96명이 치

료를 받았고, 2000년 8월까지 46명에 그치고 있어 이용이 활발치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유해화학물질 등의 약물남용을 치료받을 때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전국의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의뢰하기만 하면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서 치료비의 50%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머지 5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검찰을 경유하여 치료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의 위험으로 치료보호를 신청하지 못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비밀보호 하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 5-7) 치료기간별 치료보호현황  
(state of treatment care according to duration of treatment)

기간 연도	합 계	3일이내	4-7일	8-15일	16-30일	31일이상	평균일수
1988	527	93	144	134	124		12.3
1989	335	27	97	80	104		14.2
1990	178	33	39	65	32		11.7
1991	81	6	31	24	12		12.4
1992	88	12	34	17	18		11.9
1993	131	15	47	36	23	10	14.6
1994	74	10	16	18	18	12	18.8
1995	184	10	47	66	49	12	14.4
1996	44	7	9	14	8	6	15.2
1997	43	1	-	6	2	34	46.3
1998	122	1	7	12	24	78	42.0
1999	176	7	6	35	37	91	39.7
2000	159	3	6	10	31	108	44.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0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심포지움 자료

## 2)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자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제적인 처분으로서 형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소는 1987년 대통령령 제12232호에 따라 公州에 설립되었다. 또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요건은 우선 약물중독자여야 하며, 禁錮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약물중독되었다고 하면 현행법상 불법적 약물사용자체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치료감호를 받는 인원이 1996년에 13명이었고, 1998년 51명, 2000년 63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5-8)

(표 5-8) 연도별 약물남용자의 치료감호

연도 구분	합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입소자	199	13	29	51	43	63
출소자	158	11	17	24	65	41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전문의의 診 또는 鑑定이 있어야 한다. 치료감호기간 동안 매 2개월마다 동태보고와 매 6개월마다 종료심사가 있다. 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3년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保護監護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평균 1년 정도의 치료 및 재활기간을 거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치료효과가 의심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독자 치료기관의 선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치료의 방식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가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약물남용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이기에 앞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들이 형벌 대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L.Porter/A.E, 1986).

따라서 경찰에서 약물중독자를 검거하는 경우 약물중독으로 인한 위험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거 대신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나 재판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240병상을 확보하여 놓고도 1995년에 겨우 98명만을 치료기관에 위탁하였고, 마약류 투약자 수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 기간이 1개월이고, 그 치료기간도 대부분 6월 이내라는 것은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빚어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용시설의 부족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우선 시 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더욱이 치료보호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에는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제외된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 중독자 실태에 비추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본드흡입 및 부탄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자들을 위한 치료보호가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엄한 형사체제의 하나인 치료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흡입자를 치료보호에서는 제외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치료보호대상에 요즈음 남용되고 있는 환각제나 기침, 천식제(러미나, 2003. 10. 1) 등도 그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에 본드, 부탄가스, 각성제를 접한 경우에 마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마약 중독자의 예방차원에서도 치료보호 대상을 더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료감호제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거나 제한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제도로, 범법정신장애인과 범법약물중독자들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실시되었지만 서구와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반 이전에 모두 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범죄인을 형벌위주의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1981년부터 감호처분이 시행되었다(최옥채, 1998).

(표 5-9)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지정 마약류 중독자치료 전문기관의 현황이다.

(표 5-9) 마약류 중독자치료 전문기관(정부지정)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국립부곡정신병원부설 마약류중독진료소	경남 창원군 부곡면 부곡리 70 055)536-6441/3, 520-2518	대전신생병원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82 042)823-4401/4
국립서울정신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30-1 02)2204-0114, 0154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3 031)828-5000
국립나주정신병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061)330-4114, 4107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4 031)288-0114
서울시립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암2동 산6 02)303-9111/3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 033)254-6844/7, 258-2356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605-37 051)850-0114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279-2300, 220-5325
부산시립 정신질환자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64 051)324-2227/8, 610-7723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양리 572-3 041)630-6260, 6114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2 053)560-7575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금동 14-1 063)441-1114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318-1 032)580-6000, 580-6446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전남 목포시 용해동 133-1 061)272-2101/2, 270-6110
사회복지법인 은혜병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27-2 032)562-5101-7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 054)247-0551/7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 062)220-5114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경남 진주시 중앙동 4 055)745-8000/7
마산성모병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3가 4-247 055)243-3313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제주시 삼도1동 154 064)750-1234
광주성은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산605-1 062)600-5212/3	한미음정신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513-1 042)582-9700
큰빛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50-9 052)272-2505	계요병원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80-1 031)455-3333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 3) 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이란 일시적인 잘못으로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 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보호관찰관 보호선도위원회 지도와 감독하에 교화 및 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이다(조성남, 한성대학교 대학원 마약학과교재).

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과 교화개선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 사회 내 처우이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집행유예(probation)와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보호관찰 행정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보호국 산하에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마다 12개의 보호관찰소 및 14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치되었다.

보호관찰 실시 현황은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시행 이후 2000년 12월 31일 까지 총 365,320명의 소년 범죄자를 보호관찰 하였으며, 소년보호관찰 개시인원은 1999년 이월된 35,296명과 2000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41,028명 등 총 76,324명에 달하는데, 그 중 45,193명은 종료되었고, 나머지 31,131명에 대하여는 실시 중에 있다(문화관광부, 2001).

(표 5-10) 보호관찰 종료사유별 현황(2000년)

(단위 : 명)

구분	계	기간경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부정기형종료	성적불량자 (처분변경, 실효, 취소)	기 타 (사망등)
인원	45,193	23,275	10,783	1,572	-	4,294	5,269

자료 : 법무부 보호국(2000)

보호관찰이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서 좋은 의의를 가지고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악용의 여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범죄를 사회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자세에서 출발한 제도이므로 약물남용 청소년 및 오늘날과 같이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필수 불가결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사회보호법상 가출소자나 친족에게 치료 위탁된 피 치료감호자 등의 성년일부에 대한 보호관찰이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위원에 의해 실시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관찰담당자 이외의 모든 기준이나 정차는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보호관찰법에는 그와 연관된 규정이 없다. 그리고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재범방지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재활 활동이므로 그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도위원들의 전문성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이고, 선도위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선도위원들의 자발적 의욕과 사명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호관찰의 사후 관찰을 담당, 선도의 성패를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 5-11)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	가석방	가퇴원	가정폭력
1991	18,732	-	153	16,755	567	1,257	-
1992	21,532	1	370	18,752	823	1,586	-
1993	25,751	3	382	22,198	977	2,191	-
1994	28,256	6	499	24,423	718	2,610	-
1995	32,914	50	702	28,299	780	3,083	-
1996	37,512	18	728	32,743	548	3,475	-
1997	46,709	7	3,657	39,710	357	2,978	-
1998	50,869	7	4,929	42,737	476	2,718	2
1999	42,644	2	4,959	34,574	528	2,579	2
2000	41,028	0	4,525	33,289	461	2,749	4

자료 : 법무부 보호국(2001).

#### 4) 의료인의 중독자 신고문제

마약법 제49조, 대마관리법 제12조의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2조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약물에 중독된 자를 발견하였을 때, 약물중독자를 치료할 때, 또는 그 사망을 진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마약법 제6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대마관리법 제21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4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인의 약물중독자 신고의무에 관해서는 폐지의견과 존치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신고의무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이러한 신고의무 때문에 의료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약물중독자를 신고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인간적인 고민을 유발할 뿐이라고 한다.

반면, 신고의무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전염병의 경우와 같이 약물도 사용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유발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의료인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며, 의료인들이 약물중독자의 진

료나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용태세의 미비 또는 인식의 부족 때문이지 신고의무의 규정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독자 처벌규정을 그대로 존치 시킬, 경우 약물의 확산 방지 및 중독자들에 대한 보건정책수립의 차원에서 유지 될 것이 요망되며, 의사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료업무처리 중의 법률 위반행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위주의 경미한 형으로 형량을 조절하고, 치료중 이미 신고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상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손기호, 1993).

마지막으로 약물중독자와 치료기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기관에서는 치료 중 또는 치료이전의 검사단계에서 밝혀진 중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중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중독자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주변의 여건상 다시 약물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크다.

아직까지는 약물사범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약물사범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약물과의 단절을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약물중독자 전문치료센터와 전국 시, 도에 지정되어 있는 22개소의 치료보호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약물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 제6장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대책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해결방법에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성장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느냐는 곧 국가의 성쇠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바람직한 신체와 강한 정신력, 풍부한 인간성을 구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약물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인 성숙도, 주위환경 여건, 약물의 구입가능성 등 세 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즉, 청소년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되어 있으면 약물에 빠질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며,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역시 약물 남용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약이 없거나 약을 구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약물의 문제는 줄어들고 청소년 비행도 자연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약물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당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과제이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남용 수준은 그 겉거 숫자나 비율만 가지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엔 성급한 느낌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점차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원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은폐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 통계상의 수치가 축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형의 약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결집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집된 노력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주위의 노력을 전제로 한 상황적 대처방안과 교육적 대처방안으로 요약하여 고찰해봄으로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1. 전문적, 조직적 정책대응 강구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정책대응은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조직적, 전문적 대처방안은 크게 투자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양분된다.

첫째, 투자적 측면은 경제적 투자와 제도적 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경제적 투자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공간의 확대, 우범지역 제거 등을 들 수 있으며 과학적 수사장비의 확충, 및 통신, 기동장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우범지역 및 마약온상지에 무인자동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효과를 보고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약물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약물남용을 통해 가져오는 쾌락이나 환각을 없애기 위해 특정물질을 넣으므로써 일정 수준 이상을 흡입하거나 복용하면 신체적 부작용을 (예를들면, 구역질)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제도적 투자는 약물수사체계의 확대, 재판을 통해 조직화 전문화를 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마약청과 같은 전문수사전담체제로 정비 강화함으로써 전문수사요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사기법도 개발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천연마약의 유통경로에 우리나라가 빠져들지 않도록 대외마약정책의 개선 및 국내의 유통업소나 환락퇴폐업소 등과 같은 마약류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어기제의 활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위 유학생이라는 특혜를 무기 삼아 마약을 들여와서 주위의 또래들에게 과시하는 사례들도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둘째, 교육적 측면은 매스컴이나 인터넷 강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 시민운동의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퇴치를 위한 전선에 앞장설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관계된다.

이러한 운동은 특정기관의 일방적 운동으로 그쳐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 힘들며 일반사회단체들의 자발적, 헌신적 참여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육성 기금의 마련 및 청소년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약물의 해악을 상설 방영하거나 광고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항시적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계몽적 차원의 시민 재교육 일 것이다. 범죄 혹은 약물이라는 외부세력에 대한 국민 경각심의 고취 및 도덕성의 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상의 투자와 교육을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1994년 한해에 범죄방지예산에 3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양을 배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우리도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청소년약물기금이나 범죄예방기금과 같은 정부예산이외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약물남용의 방지 및 남용자의 재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2. 사회환경적 차원의 대책

### 1)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 정화

매년 기간을 설정하여 경찰과 학교 지도교사가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여 정기, 주기적으로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업소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표6-1)를 보면, 2000년도에는 총 391,465명의 풍기문란 사범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환각성 접착제 흡입소지자가 436명, 음주흡연자가 126,984명이었다.

이는 최근의 기성세대의 도덕불감증 심화와 함께 향락산업과 음란퇴폐문화가 만연하여 날로 번창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청소년약물의 온상이며 청소년 비행으로까지 유인하는 유해환경요소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풍기문란 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유해업소, 우범지역, 난잡한 유원지, 불량소년이 모이는 사설 강습소 및 독서실, 극장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주변을 정화하고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비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행동을 막기 이전에 학교주변에 유흥업소 설치를 불허하고 기존 업소를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을 유혹하는 학원 주변의 유해환경업소의 화려한 간판이나 자극적 벽보를 제거하고, 학교별 정화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업주들을 학교 선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선도의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도 청소년비행의 선도를 위한 실천방안의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6-1)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 상황

(단위 ; 명)

구분	계	단 속							처 리			상담 카드 작성
		불량 만화 음화 소지	남녀 혼숙	음주 흡연	환각성 접착제 흡입 소지	싸움 소란	흥기 소지	기타	보호자 인계	이첩 통보	즉심	
1999	250,496	623	1,066	80,433	374	29,802	336	137,862	244,068	6,172	256	5,743
2000	391,465	482	1,089	126,984	436	48,292	423	213,759	383,753	7,451	261	5,704

자료 : 경찰청(2001).

둘째, 경찰의 지속적인 선도, 단속 활동도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대책의 하나이다. 경찰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내에서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실적을 보더라도 음주흡연행위에 대한 단속내용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 흡연 행위가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경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순찰강화로 이들 음주흡연자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자녀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연계된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원생들의 약 50% 이상이 약물중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년원에서 단순히 보호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재화시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소년원내에서도 비 약물남용 소년원생들을 위한 약물남용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6-2)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실적(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내)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단속내용					처 리				상담 카드
		음주 흡연	싸움 소란 행위	흥기 소지	남녀 혼숙	기타	즉심	현장 귀가	보호자 인계	이첩 통보	
1996	34,733	11,991	5,919	220	197	16,406	840	24,744	8,766	353	578
1997	42,927	17,374	5,843	11	238	19,461	463	32,062	10,171	231	569
1998	53,519	21,138	7,590	43	310	24,438	23	35,866	17,055	575	1,790
1999	54,663	19,415	8,872	23	227	23,126	5	40,973	12,450	1,235	3,410
2000	34,341	11,788	6,569	-	242	15,742	8	24,674	9,637	22	1,592

자료 : 경찰청(2001).

## 2)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전반적으로 약물사용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불법 약물보다는 합법적 약물들을 환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의사, 약사, 가게주인 등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술, 담배, 부탄가스, 본드와 진해 거담제 약 등의 판매루트를 개선하여 미성년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해약물의 제조, 수입한 자는 유해약물에 표시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담배의 경우 기존의 자동판매기를 제한하여 설치하거나 없애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처음 비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비행을 하게 되면 다음 번 비행을 하기는 쉬워지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더 강도 높은 비행을 거침없이 하는 등 비행행위는 가속화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을 쉽게 접할 수 없도록 판매루트 개선과 판매자들의 처벌보다는 업주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판매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지 인식시키고 시경세대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는 약물유통구조가 지하 조직화하여 그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되는데 비하여 이를 통제하는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는 신종약물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를 통해서만 수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약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약물전문 연구기관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여 상시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책 마련에 바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 방법은 (표 6-3)과 같다.

(표 6-3)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방법

구분	의무자	표시문구	형사처벌	표시방법		
				크기	색상	위치
술	제조 수입한 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판매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 제8호)	상표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 자율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담배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안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담배갑 뒷면
부탄 가스	"	본 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3호)	용기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 자율
환각 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부탄가스 외 공업용 제외)	* 표시불이행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 제1호)	업계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함	바탕색과 보색	업계 자율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고시한 약물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상표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 자율
제5호의 약물 또는 물건 중 당해 약물이나 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재구성

### 3) 음주문화의 변화와 매스컴의 역할 필요

술이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하는 일차적 관문이라 생각할 때 결국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의 일차적 책임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술 문화와 그것을 방조하는 매스컴의 역할이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관용적인 술 문화와, 그것을 아무 제동없이 매스컴이 영상매체를 통해 방영할 때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문제 관련 프로그램 제작시 제작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제작자는 범죄 등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사회현상을 보도할 때 그것이 시정되는 결과와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 등 일탈행위에 대해 바르게 인식토록 유도하며, 반발적인 자포자기적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대중매체는 단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해 줄 수 있다는 점에 힘이 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생업, 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같은 세대로서 공감을 조성하여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

또한 약물광고의 경우 전체 텔레비전의 광고의 반 이상이 약물광고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며,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고, 술을 먹기 위해 약을 먹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큰 시험을 치르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닥쳐올 두려움과 걱정을 약물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다 보면 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약물남용으로 발전하기 쉽다.

이러한 약물의 효과는 대중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변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약물광고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며 약물의 주 효과와 부수 효과를 엄격히 구분하여 광고업자들의 광고 제작시 참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덧붙여 약사 등 약물관련 전문가들의 주의도 요망된다. 각종 약국에서 규제법상에 관련된 약물이 아니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4) 지역사회 노력

첫째, 지역사회로 하여금 약물남용 예방활동과 치료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만들어져야하고 조직들을 다양화하여야 하며, 상호 계획하고 협조하며 일종의 조직망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태도를 선택하도록 하게 한다(주왕기 외, 2000).

지역사회 내 복지센터(복지관)를 마련하여 개인, 학교생활, 가정생활과 관련

하여 여러 문제를 현실성 있는 선도사업을 펼쳐야 한다. 복지센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효과적인 연결망을 구축한다. 모든 지역 사회복지관이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곳은 아니나, 지역사회 내의 불량 씨클 및 비행소년 집단화 현상을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복지관이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도 많이 있으나 전문 인력요원의 부족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청소년 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인적, 재정적, 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둘째, 협력체제의 필요성이다. 소년 경찰과 학교, 직장,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인, 의료인의 협력체제를 재조정, 강화한다. 그리하여 범죄 다발지역을 문제지구로 설정하여 통, 반 단위의 지역조직체를 통한 비행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비행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선도, 상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선도 위원이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의 선도 담당자와 더불어 지역별 선도, 상담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질이 중요한데, 이는 청소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노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표 6-4)는 우리나라 약물남용 청소년관련 상담기관현황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조하여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곳이다.

(표 6-4) 약물남용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현황(2002)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김경빈신경정신과의원	02-201-8258-9	알콜전문병원	02-412-8275
계요병원	0343-55-3333	알콜중독선교본부	02-834-9290
가야신경정신과의원	02-718-7575	Alanon(가족)모임	02-752-1808
성안드레아병원 (알콜회복교실)	0336-636-8200	알콜중독방지협회	02-718-2317
연희신경정신과의원	02-323-9197	천주의 성요한 알코올상담치료센타	상담 062-510-3370-2 일반 062-529-0041-3
한도병원	0351-877-608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9-2038-9
양산신경정신병원	주간 0523-385-1610 야간 0523-389-1234 일반 0523-83-8082-6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02-248-4567-9
		서울YMCA동대문지회	02-246-1281-4
광주세브란스병원	0347-61-1890-4	청소년약물 오, 남용 예방전화상담소	02-461-0036
오산신경정신과의원	0339-73-1254-5	밀알선교봉사회	02-527-3210-1
AA(단주모임)	02-3672-9511	한국약물남용연구소	0361-54-6127
AA모임	02-774-3797	한국금연운동연합회	02-794-8816
5일금연학교	02-210-3615-6(교환2151)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설 한국금연학교	02-730-6774
	02-210-3653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 3. 학교의 대책

#### 1) 학교교육의 활성화

청소년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체 응답교사의 53.1%가 학교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1994)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에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내 약물남용예방 개입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학교체계내의 부정,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화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Safe and Drug-Free School)프로그램을 위하여 교육담당 부처가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물에 관한 지식, 교사가 가져야 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및 수업계획 등 배경지식, 학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약물예방활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모든 학교가 약물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5-7세의 어린이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약물의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7-11세의 학생들에게는 담배, 술, 약물남용에서 생기는 건강상의 해악을 알게 한다. 11-14세의 학생들에게는 인체의 건강기능이 담배, 술, 유기용제, 약물남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14-16세의 학생들에게는 약물남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르친다(박명운, 1997).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적 측면으로 첫째,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일회성 교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정시간을 선택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건강교육 및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선진국과 같이 정규수업시간으로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활동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주로 교육하면서 약물사용의 유해성을 교육하고, 중학교에서는 약물사용의 유해성과 약물중단에 대한 교육, 그리고 비행으로 이어지면 개인적, 사회적 폐해성의 문제점을, 고등학교에서는 약물중단과 정상적 사회복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약물의 유해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약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예방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각종 사진, 도화, 슬라이드, 영화, 시청각자료 등 약물교육관련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약물예방교육과 약물남용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약물관련 전임상담교사가 각 학교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전담교사 채용에 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역별 순환교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이기정, 2000)

둘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욕구들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약물사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성 증진에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교육을 위해서 전문 심리상담사, 심리학자, 의학자문가, 그 밖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작진이 만든 교양비디오 등을 통해 약물의 해악성을 직접 보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방영함으로써 아이들이 담배나 술 혹은 약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한다.

아래에 소개된 학교 내 개입과 의뢰모형은 학교 내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의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차와 2차 예방프로그램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3차 예방은 학교 이외의 의료기관등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위한 것이다(유채영, 1997).

(표 6-5) 약물남용예방 학교개입 프로그램

1차예방(사용예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 상
육구조사 계획 및 실행	· 정기적, 지속적 관련 연구 및 문제규명 · 선택약물, 새로운 약물, 유통경로, 약물사용율, · 최초 사용 연령,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전문가 주민, 학생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 육구조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계획 · 실행팀 구성 및 평가방법 선정	교직원
직원 교육	· 약물의 효과 및 영향 교육	교직원
사회적 능력 증진프로그램 · 자기주장 훈련 · 거절기술 훈련 · 문제해결 기술	· 약물남용으로 이끄는 매스미디어, 성인의 영향에 대한 인식 증진 · 약물사용을 거절하기 위한 전략 및 사회적 기술의 제공	일반학생
또래 상담자 양성	· 자원학생의 상담자 교육과 활동배치 · 또래 상담자의 사례발견을 위한 지원	일반학생
약물교육	· 학년별 약물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구성과 실행 · 교재 및 교구 제작	일반학생
알콜중독가정 자녀예방프로그램	· 알콜중독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 교육진행 속도 및 자료의 차별화, 토론 기회 강조 · 부모의 애정이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유로 한 상황 이해 증진과 지지	알콜중독 가정의 자녀
부모 관계망 형성	· 약물교육지지, 협조하는 학교 지원망	학부모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 예방을 위한 부모 지원 · 가족관계 및 양육기술 개선 · 약물에 대한 지식 습득	학부모
지역사회 조직활동	· 유해환경 정비 · 약물없는 지역선정, 학부모 감시단 조직 · 모금활동 연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걷기대회 · 캠페인, 연극공연, 표어/포스터 제작 공모 · 학부모 운영위원회 약물기금 후원분과 조직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2차예방(초기개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 상
학교 내 약물관련 교칙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관련 교칙 및 실행절차의 성문화</li> <li>·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에 명시</li> </ul>	사용학생 교직원
사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사용하고 있거나 위협에 처해있는 고위험군 학생 확인</li> <li>· 약물교육 수업을 통한 발견</li> <li>· 학생의 생활기록 및 학업성취기록 검토</li> <li>· 지역경찰과 학교 행정직원과의 연계</li> </ul>	고위험군 학생
개별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 스크리닝, 외부의뢰 준비</li> <li>· 학생주변인 및 학생 자신의 상담 요청</li> </ul>	고위험군 학생
단기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 대한 정보수집</li> <li>· 지식 및 정보제공으로 가족능력고취</li> <li>· 지역사회 기관으로 의뢰</li> </ul>	학부모
지지집단 상담 :교육집단, 동기화집단 사용경험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중에 남용자가 있는 학생의 지지</li> <li>· 통찰</li> <li>· 약물 중단유지를 위한 지지</li> </ul>	고위험군 학생
관련 집단 상담 · 이혼가족자녀 · 애도상담 · 사회기술통진 · 청소년기 주제 · 입학, 전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사용에 흔히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다루기 위한 집단</li> <li>· 애도상담(grief counseling)은 사고사와 자살로 친구나 가족을 잃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짐</li> </ul>	고위험군 학생
약물남용 전담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남용에 관심을 가진 여러 전문직 직원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팀 구성 및 운영</li> </ul>	교직원
사례회의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의논, 행동계획 수립과 타 직원에게 의뢰, 약물예방/개입 프로그램 계획</li> <li>· 문제에 따른 관련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li> </ul>	교직원
직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남용 문제 및 상담</li> </ul>	교직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자원파악 및 연결</li> <li>· 지역사회 내 약물남용 관련기관 파악 : 기관서비스의 표적인구, 기관의 치료방법, 학생에의 접근방식</li> <li>· 협조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li> </ul>	지역사회
지역사회 조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협의체 구성</li> </ul>	지역사회
사정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체크리스트 선정 : 자료수집, 행동계획 수립, 학생의 피드백에 사용 담당교사 도움</li> </ul>	고위험군 학생 학생, 교사

3차예방(초기개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 상
개별상담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남용 사정</li> <li>· 약물남용/의존에 대한 교육</li> <li>·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의 선택방법 의뢰</li> </ul>	남용학생 부모
지지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 프로그램 참여 지지와 강화</li> </ul>	남용학생
재발 예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li> </ul>	회복학생
재등교 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나 법적 제재에서 학교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조</li> </ul>	남용학생
지역사회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 및 의료, 사회적 서비스 연결</li> </ul>	남용학생 가족

자료 : 유채영(1997).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학교내의 개입과 의뢰”.  
서울YMCA 제7회 청소년 약물상담 워크샵 자료집

실제로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약물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교칙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기도 하지만 ‘심성수련’ ‘금연금주 프로그램’이라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전문상담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계획되고 준비된 지도아래 학교 내 개입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약물예방 교육은 전교생이나 한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실시되는 일회성의 단시간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방송수업으로 진행되거나 약물 오, 남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나누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달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의 생활지도교사 혹은 양호교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학교가 주체가 되어 약물예방 교육을 전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한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6-6)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서대전 고등학교의 금연 금주 프로그램의 예이다.

(표 6-6) 서대전 고등학교의 금연, 금주 프로그램

회기	주 제	내 용
1회	목표설정 소개 사전검사	<b>프로그램 목표</b> · 청소년 스스로 '담배도 약물'임을 인식하게 한다 · 음주로 인한 행동에 대해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한다. ·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약물 및 서에 대한 개념, 위험성, 대처방법을 학습한다.
		· 사전검사 · 자기소개 : 자화상 그리기 · 모임의 약속과 약물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나누기
2회	금연 1 -나를 찾아서	· 자아발견 : 자존감 검사, 칭찬하기 · 니코틴 중독 자가 진단 · 흡연 동기 탐색
3회	금연 2 -친구들이 도와줘	· 흡연과 관련된 퀴즈풀이 · 흡연시작 시기와 현재, 미래의 소망 표현 : 표현예술기법
4회	금주 1 -술과 나	· 알코올과 관련된 상황극 · 선별검사 : 알콜중독 자녀 선별검사표 작성
5회	금주 2 -나는 희망한다	· 전지에 위험사항 그려보기 · 비디오 시청
6회	이성교실 -우리는 좋은 친구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교육 · 성에 관련된 스피드 퀴즈
7회	약물의 올바른 이해	· 약물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사례를 통한 토론
8회	결단하기 -버리고 싶은 내 모습 사후 평가	· 자기발견 : 자신이 버리고 싶은 것 · 프로그램 평가 · 보고서 작성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 사범사업보고서

## 2) 가치관 형성교육

실질적인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생이 약물에 관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가이다.

첫째, 주위에서 약물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여 ‘약물’ 하면 바로 ‘안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딱 한번도 안됩니다’ 라는 식의 캠페인은 아이들의 태도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적인 면은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이 되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전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다. 학교주변이 유흥업소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유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너희들만 깨끗하면 된다’ 는 식의 교육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둘째, 청소년들의 신고정신함양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정서는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은 나쁜 일을 보고도 못 본체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친구의 나쁜 짓을 이르기라도 하면 친구들과 사이에서 고자질장으로 비난받고 교육자도 같은 입장인 경우가 흔하다. 물론 고자질은 나쁘지만 정당한 신고는 옳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중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이 불과 30% 내외라는 통계가 시사하듯이 자신의 피해도 신고하지 않는 마당에 불법이나 탈법의 현장을 신고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낮은 신고율은 신고 후의 대처방안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학생들간의 보복조치가 행하여 질 수 없도록 하는 신고기제가 마련되어 어릴 때부터 주변의 비리를 신고하고 밝혀내려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처럼 사소한 부정이라도 눈감지 않는 고발정신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약물남용의 만연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약물남용 예방 측면의 하나로 학교활동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학업성적 중심의 학급,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학교 내 서클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학업 부진아들의 비행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을 활용하여 공부 이외의 능력개발을 통해 소그룹별로 지도해 주거나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들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듯한 교육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주변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이 우수학생들을 위한 들러리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각자의 장점을 개발해 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문화관광부, 2001).

### 3) 학교사회사업제도 도입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약물남용 등의 비행과 연결되어 문제를 일으킬 때 청소년 문제를 1차 적으로 학교내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사회사업(School Social Work)이란 제도를 시행해 대처하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제이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위기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김성이 외, 1996).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사업가에 의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공유지역에 위치하여 약물사용 청소년의 가정과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욕구에 대한 학교의 반응을 증가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교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인식변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들은 지역사회 내에 약물남용상담의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협조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노력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이 약물사용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원조하며, 약물남용으로 인하여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어려움들까지도 체계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유채영, 1997).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의 의미는 학교에서의 약물남용 학생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방식에서 선도위주의 교육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학교는 사전에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관찰이나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만약 마약이나 약물에 의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잘 교화해서 재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교육적 이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 대 학교사회사업가는 전문가로서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문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직화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교사집단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아오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라는 한정된 공간에 학교사회사업가가 투입되어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사회사업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독립적 위상을 갖추면서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회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자나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유해 환경에 쉽게 몰들고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범죄 집단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학교 내 선도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특수 학교나 학급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수용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사회로 내 보내야 한다.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사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학급 인원수의 감소, 전문 상담교사의 채용 또는 상담관련 학부모의 보조 상담교사로의 활용 등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 4. 청소년 개인과 가정의 대책

청소년 개인은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위해 약물남용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개념 증진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기능적 의사소통 양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에 저촉되고 적발된 후 반복할 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받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물남용청소년의 많은 수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포자기적 태도를 보인다해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벌사항에 대해 인식 할 때 우발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수곳력을 갖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가정생활 혹은 가족관계에 관련되어 청소년들의 약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구성원간의 애정정도로 나타났다(형사정책연구원, 1995). 애정이라 함은 단순히 구성원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성원간의 믿음, 격려, 존중, 배려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위에 애정이 자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

Regina Avraham(1988) 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 다음에 다음의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그 아이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다.

- ① 학교에 결석을 할 때
- ②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질 때
- ③ 외모의 변화 : 혈색이 나빠지고 주의력이 떨어질 때
- ④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 : 초조감, 울화증, 무관심, 냉담
- ⑤ 사용할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돈을 요구할 때
- ⑥ 불필요한 공간에서 선글라스 등을 쓸 때(밤이나 실내에서)

- ⑦팔뚝을 가리려하거나 긴팔 옷만을 입으려 할 때
- ⑧집 등에서 술이 없어지거나 약품이 없어졌을 때
- ⑨약물남용자로 알려진 친구들이나 선배를 사귄 때
- ⑩집이나 학교, 직장, 친구들과로부터 조그만 물건이라도 훔칠 때
- ⑪출처가 불분명한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때
- ⑫사회적 활동, 친구, 모임, 가족간 대화에서 빠지려 할 때 등이다.

위에 열거한 증상들은 청소년이 약물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상행동 증후군이며, 이 외에도 아이의 행동에 이상한 기미가 보일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이 연령의 청소년들이 담배, 술 그 외에 약물에 가까워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와 함께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약물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주왕기·최충옥(1999)은 부모가 해야 할 행동지침으로 다음의 몇 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는데,

- ①자녀와 자주 의견교환을 하고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끼는지 정기적으로 대화한다.
- ②약물사용 징후가 있는지 세심히 관찰한다.
- ③약물에 관한 일반적 명칭과 통속적인 속어를 알아둔다.
- ④가정이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안식처가 되도록 한다.
- ⑤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 ⑥자녀가 누구와 있는지를 알아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각 가정에서 부딪히는 사안별로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전 예방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며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약물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1998년 IMF이루 실직자 가정의 청소년이 심리적 부담으로 부모의 실적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실직과 실직 위기는 개인에게 그 자체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고 부부간의 불화, 미래에 불확실, 재정적 어려움 등이 따른다. 부모의 실직과 실직위기는 자녀의 심리적 불안감과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약물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마약없는 밝은사회, 1998)

가정내 부모의 알콜문제가 심각할수록 약물사용 경험이 높았는데, 공업계 학생의 경우 부모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영향 때문에 사용한 남학생이 18.1%, 여학생이 23.5%로 가정의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서울YMCA, 1999).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술이나 담배를 사용할 경우 그들의 자녀가 그러한 행위를 모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잔여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혹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아이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그냥 두고 잠자리에 들면, 아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양의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황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다.

즉 학교나 가정이 단편적 지식전달이나 편안한 삶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녀 및 학생들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형제간의 행위라도 죄질이 나쁜 행위라면 고자질이 아닌 정당한 지적으로 부모에게 알리는 민주적 비판의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따라서 자기에 대한 관리 역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민주적 훈육방식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식들이 점차 자라면서 훈육하는 방식에 있어 스스로에 대한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약물남용 청소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중심으로 초기 원인과 실태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문제 및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의 대처방안으로 특히 주목할 관점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문제가 청소년 비행으로 진행되어 비행청소년이 될 경우에 이에 법적 처벌보다는 보호관찰과 같은 선도위주와 치료보호 제도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 먼저,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의 종류별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마약류의 남용은 적었다. 그러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술이나, 담배,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문제로 진행하게 되는 가장 우려되는 약물인 본드나 가스과 같은 흡입제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에서는 생물학적 원인, 사회심리적원인, 개인적 원인, 가정적 원인, 지역적인 원인,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보았다.

첫째, 생물학적 원인에서는 체질상의 차이 즉, 유전적 원인이 약물을 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 나타나는 금단증상의 경우 고통정도가 달라서 그 고통이 심하면 금당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점은 개인의 차이가 체질과 관계되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러한 체질상의 차이는 곧 유전적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 심리적 원인은 친구관계나 동료들로부터의 유혹에 쉽게 동조하기 쉬운 청소년기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며 긴장과 불안의 대처방법으로 약물을 접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동기로는 유형별로 약물을 복용하고 경험하여는 태도가 서로 다르며 평화추구형이나 모험추구형에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가족이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들의 약물의 습관이 청소년 자신도 무르게 습관화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지역적인 주요원인은 수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도시지역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엑스터시, S정, 러미라, 대마초(마리화나) 등이 증가되고 야산, 주택가, 재개발지역 등에서는 담배, 본드, 술 등을 청소년들이 상습적으로 사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사회 환경적 원인으로 약물남용이 만연된 사회분위거나 가치관의 혼란 상태와 사회부조화 현상으로부터 오는 소외감이 청소년약물남용의 원인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에서는 술과 담배의 남용이

가장 문제시되며, 소년원에 수용중인 청소년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사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약물추세에서 두드러진 점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 보다 술, 담배의 사용경험은 적으나 각성제, 수면제의 사용경험은 매우 높았다. 연령별 마약류 사범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꾸준한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 대책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조직적 정책 대응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지역적 확대와 우범지역 제거를 위하여 경제적 투자와 약물남용 수사체계의 확대 및 전문수사전담체계를 강력하게 갖추는 제도적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투자는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 약물남용기금이나 범죄 예방기금과 같은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약물남용의 방지와 남용자의 치료재활을 도울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환경 차원의 대책으로서 약물남용청소년의 대부분이 무료함 때문에 유해환경에 쉽게 젖어드는 경우 대비하도록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쉽게 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적절한 법의 제재와 같은 구속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과 인터넷에서 부추기는 흡연,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약물과 금연운동을 지속적인 홍보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 할 문화공간을 지역별로 마련돼 주어야 한다.

셋째, 학교의 대책방향으로는 조기 예방교육과 가치관형성교육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시간을 배정하여 체계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개인프로그램을 현실화하여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자아를 존중해주고 청소년의 갈등상황을 이해해 주며 처벌보다는 선도위주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약물남용으로 인한 비행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소그룹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마약을 전공한 약물상담사 교사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개인과 가정의 대책으로서 긍정적 자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와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청소년

기의 특성상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또래집단의 권유에 약물을 쉽게 접한다 하더라도 항상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대상은 가족이어야 한다.

부모는 인내심을 갖고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주고,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가정에서 약물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함도 좋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도 지속적인 사회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예방 및 대책안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국민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약물남용으로 인한 비행청소년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한 문헌적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사례중심을 통한 연구에 비해 한계가 있고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의 보안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연구보고서 및 논문

- 김성이.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연구. 문화교육부 1996
- 김성희. 마약류통제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김용석. 약물남용의 심리적요인, 마약없는 밝은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 김준호, 박정선.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박명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퇴치방안. 「통권 제9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박종문. 청소년 약물 오, 남용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손기호. 마약류 남용사범의 치료와 형사처벌 연구. 대검찰청 1993
- 유채영. 약물 청소년을 위한 학교내의 개입과 의뢰. 서울YMCA 제17회 약물상담 워크샵 자료집 1997
- 이계록.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및 대책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영준.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우영. 청소년 비행의 원인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혜수.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수경.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적 접근을 위한 초기개입 고찰. 연세사회복지연구소 1996
- 소귀례.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최영애. 원주지역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현안나. 수용보호 중인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적용과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기철.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인숙.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기정. 약물남용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재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서중.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요인분석.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광선.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경목.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성남.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 연구. 국립부곡정신병원장 2003
- 박윤희.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원사덕. 효율적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윤숙.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은숙.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처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수진. 자서전적 면접에 의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특성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장정연. 청소년 약물남용과 가족변인과의 관계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혜란.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생태 체계적 개입.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 단행본

- 주왕기 외. 약물남용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신일상사 2000  
주왕기.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Mc Graw Hill 2003  
주왕기. 약물남용. 신일상사 1999  
최선화. 청소년과 약물남용. 홍익제 1996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출판 2000  
김헌수. 약물남용 청소년의 환경, 역동적 분석. 중앙의대지 1988  
김소야자. 청소년 성장발달과 간호. 수문사 1987  
민성길. 약물남용. 중앙문화사 1998  
이운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문음사출판 2000  
박명원.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990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5  
표갑수. 아동, 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8  
현대사회연구소.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1992  
김성이. 약물중독 총론. 양서원 2003  
김대근 외. 마약과 약물남용. 2002  
박상규. 마약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 학지사 2003  
정희선. 생체시료에서 마약류의 검사. 신일상사 2000  
변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3. 정부간행물 및 잡지

- 김혜숙 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상담 실천이론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2002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1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0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1999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199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7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1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약물남용실태 조사결과 199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

법무연수원. 마약수사능력개발반 2003  
서울YMCA. 제7회 청소년 약물상담 워크숍 자료집 1999  
경찰청. 마약류 수사관련 법령집 2003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 200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약물 오, 남용 1998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 1992  
마약류 용어해설. 국가정보원 2003  
선진마약수사기술법. 서울중앙지검 2003  
수사연구. 마약수사 뿌리를 캐자. 수사연구사 2002  
마약연구. 마약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연구. 한국국제마약학회 2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상담전문가 양성과정 2003

-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1999), “Drug use Trends”
- ◇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the University of Michigan(2000), “Trends in Lifetime Prevalence of use Various Drug for youth Group.”
-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2000), “Global Illicit Drug Trends”
- ◇ 麻薬・覚せい剤 濫用防止 セソタ 麻薬濫用防止 チセトコシマハ Q & A.

Avraham Regina(1988), The downside of drugs, Chelsea House Publishers ; Series 2 of The Encyclopedia of Psycholactive Drug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술, 담배를 중심으로 재인용.

L.Porter/A.E. Arif/W.J. Curran, The Law and the Treatment of Drug and Alcohol-dependent Pers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1986

: 황해원(1996). “청소년 범죄에 관한 연구 -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인용

(관련 웹사이트) 대검찰청 마약부, 국가정보원

- <http://www.drugfree.or.kr/html/main-0.htm>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http://www.youth.go.kr/main/default.asp> 청소년보호위원회
- <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외 문헌

- Baer, D. J., J. J. Corrado, "Heroin Addict Relationships with Parents during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74, pp.99~103.
- Baskett, G. D., R. W. Nyswender, "Drug Use Correlates," *Psychology*, No.10, 1973, pp.54~56.
- Churchill, Jr., Gilbert A,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6, No.1(Feb. 1979), pp.64~73.
- Emory, C. William, *Business Research Methods*, 3rd ed.(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85), pp.99~100.
- Harding, C. G., A. Safer & J. Kavanagh,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Strategies," *Adolescence*, Vol.33, No.13, 1998, pp.310~313.
- Hurlock, E. B., *Adolescent Development*, Mcgraw Hill, 1955, pp.134~137.
- Leshner, A. I., "Science-based Views of Drug Addiction and its Treatmen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82, No.12, 1999, pp.1314~1320.
- Martino, E. R. & C. V. Truss, "Drug Use and Attitudes toward Social and Legal Aspects of Marijuana in a Large Metropolitan University," *Journal of Psychology*, No.20, 1973, pp.120~126.
- Newcomb, M. D., E. Maddahian. & P. M. Benter, "Risk Factor for Drug Use among Adolescents :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nalys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76, No.5, 1986, pp.525~531.
- Sadava, S. W, "Initiation to Cannabis Use : A Longitudinal Social Psychological Study of College Freshme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No.5, 1989, pp.371~384.
- Santrock, *Adolescence*, Brown Publisher, 1981, p.179.
- Willford, B. B., "Drug Abuse : A Guide for the Primary Care Physici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8.

## (부록)

### ◎ 청소년 약물남용 사례

#### I. 사례 1 : 호기심으로 히로뽕을 남용한 청소년

1. 일 시 : 2003. 10. 6. P.M. 3:40~4:15

2. 장 소 : 서울 ○○원 간호사실

3. 소녀의 배경

①성별 : 여

②연령 : 17살

③학력 : 중학교3 중퇴

④직업력 : 카페 호스티스

⑤성격 : 무뚝뚝하고 반항적임

⑥가족관계

아버지는 어릴 때 사망, 현재 어머니, 오빠1, 언니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편이며, 가족들이 소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는 편이다.

4. 소녀의 진술

소녀는 국민학교 때부터 다른 가족과는 달리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고 한다. 언니, 오빠들은 말썽을 피우지도 공부를 그렇게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더욱더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2학년때부터 선배와 친구와 같이 고고장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학교에는 오전 시간에만 있었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도망 나와서 만화가게, 고고장에 갔다. 이 때문에 학교를 세 번이나 옮겨야 했다(학교에서 퇴학시키려는 것을 어머니께서 잘 처리하여 전학하게 됨).

고고장 입장료는 1,000원이었으며, 이것을 소녀는 죽비라고 말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고 한다.

소녀는 중2때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언니가 러미라를 30알 복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소녀도 몇 알을 복용했다고 한다. 복용 후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으며 물건들이 작게 보였다고 했다. 소녀는 중학교 중퇴이후 카페에서 술을 따르며 호스티스 생활을 했다고 한다. 처음 카페에 나왔을 때부터 히로

빵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년 전에 친구와 친구의 남자 친구가 히로빵을 주입한 뒤에 환각상태에서 히로빵을 권해서 소녀도 처음으로 히로빵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히로빵을 계속 주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때에는 “너는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만 히로빵을 주입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권하게 된다고 했다. 소녀 주변의 히로빵을 사용자들도 평소에는 소녀와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왕 버린 몸이지만 “너는 하지 말라” 고 했다고 한다.

히로빵 주입 후에는 집중력이 생기고 시간이 잘가는 느낌이 들며, 계속해서 화투패를 뜬다고 했다. 평소에 시간이 잘 안가느냐의 질문에 소녀는 평소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희망적인 상황보다는 암담한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히로빵을 주입하면 시간이 잘 간다고 했다. 이후 소녀는 히로빵을 한 번 더 사용했는데 며칠 후에 히로빵을 갖다주고 주사를 해 준 친구의 남자친구가 잡히게 되었다. 이 사람이 경찰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고발하게 되어 소녀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검찰에 구속되었다.

앞으로 소녀는 미용기술을 배울 생각인데, 옛날에 집에 있을 때 언니에게 드라이를 해주면 어머니가 예쁘다고 하시면서 미용사가 되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이 소녀가 미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II. 사례 2 : 히로빵을 피로회복제로 사용한 청소년

1. 일 시 : 2002. 8. 28.(월) P.M. 4:30~5:35
2. 장 소 : 부산 ○○원 상담실
3. 소년의 배경
  - ①성별 : 남
  - ②연령 : 18세
  - ③교육정도 : 고1 자퇴
  - ④경제상태 : 중하
  - ⑤거주지 : 부산 동상동
  - ⑥약물종류 : 히로빵(10회 이내), 본드(약 이틀에 한번)

⑦입원기간 : 1개월

⑧증세 :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음(살이 빠졌다고 함)

(담당의사에 의하면 불순물이 많은 히로뽕을 사용했거나 흡입한 본드의 양이 적은 것 같다고 함).

⑨인성 : 공격성이나 잔인성을 크게 보이지 않음.

#### 4. 가족 구성원

부 : 국가유공자로서 매일 출근

모 : 직장 다님

동생 : 3(학생)

형, 누나 : 결혼하여 따로 나가서 살림함

소년

#### 5. 소년이 느끼는 가정분위기

대화할 상대가 없으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낌. 그리고 방이 2칸인데, 1칸은 본인이 1칸은 부모, 동생 셋이 같이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부모에게 방 3칸짜리로 이사가자고 불평을 하지만, 부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옮길 수 없는 처지이다. 그 때문에 가정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고 가난한 가정환경에 대해 불만 갖고 있다.

#### 6. 소년의 문제점

중2때까지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중3때부터 가정과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으며 학생들에게서 돈을 빼앗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친구들에 대한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디스코테크에 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돈을 뺏기는 또래 학생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낀 것 같다.

중3때 본드 흡입도 했는데 한 친구를 통해서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1회 때는 목이 막혀서 실패했으나 2회 때는 기분이 좋은 상태가 왔다. 본드 흡입시 환각상태는 없었고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이후에 혼자서 본드를 흡입해 왔고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머리에 물이 찬다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이틀에 한번씩 또는 1주일 쯤 쉬다가 하곤 했다.

본드 흡입은 집에서 부모님 몰래 했고, 디스코테크에서 춤을 추고나서 길거리에서 본드를 빨기도 했다. 한편 담배는 중3때 시골에 놀러갔다가 친척에게서 배웠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했으나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없어졌다.

고1때에도 본드 흡입, 폭력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선생님께서

머리를 깎았고 나와 동료들은 이에 분노를 느꼈다. 머리를 깎인 학생들은 고2 학생이 나서지 않는 바람에 내가 앞장을 서게 되었고 이 일로 선생님께 크게 꾸중을 듣고 난 뒤 용서를 빌고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부모님들 몰래 본드 흡입을 해왔지만 아버지도 차츰 알게 되었고 한때는 1주일 정도 가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시골에 있었으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냥 불로 불침을 팔뚝에 놓아 흉터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자퇴서를 내고 술집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DJ를 보는 일이었는데 어느날 소년이 무척 피곤해 하니까 술집 웨이터가 “너 본드하지? 히로뽕 한번 맞을래? 하고 싶으면 3만원을 가져와” 라고 했다.

어느날 집에서 계가 있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자고 무척 피곤했다. 그날 웨이터에게 3만원을 주었고 화장실에서 웨이터가 정맥을 통해 주사했다. 소년은 스스로는 주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주사를 맞은 후의 기분은 묘하게 좋은 상태였으며 잠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후 술에 타먹기도 했는데 그 횟수는 모두 10번 이내였다고 했다. 소년에게 주사를 놓아준 웨이터는 마약중독자인데, 이 사람은 히로뽕을 종업원에게 먹여서 술집을 경영하는 곳에서 있다가 도망나온 사람이라고 했다.

소년이 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동기는 본드 흡입 후 울산 누나집에서 창문과 살림을 부순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아버지가 입원을 시켰다.

현재 자신의 비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병원을 나가면 학교에 다시 복학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으며, 소년과 놀던 친구들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한국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계속적으로 본드와 히로뽕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비취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년은 다시 본드나 히로뽕 사용, 폭력을 행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본드나 히로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섭다고 했다(계속사용할 때에 오는 결과적인 중독현상을 겁내고 있는 듯했다).

## 7. 소년의 특징

단독으로 본드 흡입을 했기 때문에 흡입상태에서의 폭력은 없었고 본드 흡입후 주로 잠을 잤다고 했다. 히로뽕에 의한 중독증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성격장애도 보이지 않았으며 신체적인 중독증세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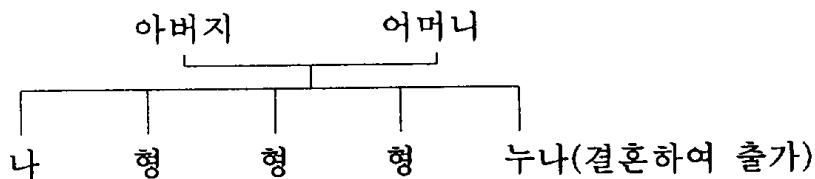
## 8. 치료책

소년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된 동기는 가정의 무관심, 대화부족이 주원인으

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의료원에서의 치료는 소년에게만 행해지고 가족치료에 대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원래 소년의 성격이 온순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이 소년의 사후관리는 무척 중요할 것 같다. 가족과 소년을 조화시키고, 소년의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가 각별히 행해져야겠다.

### Ⅲ. 사례 3 :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부탄가스를 남용한 청소년

1. 장 소 : ○○병원, 신경정신과 사회사업과실
2. 소년의 배경
  - ①성별 : 남
  - ②연령 : 19세
  - ③학력 : 고3 재학중(기계공고)
  - ④가족구성원



#### 3. 가정환경

경제적으로 중상정도로 어렵지 않으나 부부갈등이 심하고 부모와 소년관계도 좋지 않다. 소년은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약물사용 장소	집
약물사용기간(횟수)	5~6개월(89)
약물출처	가게
약물구입비	용돈
약물과 비행(증세)	환시현상(불안할 때 사용한다)
약물에 대한 태도	약물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없다
소년의 특징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약물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한다

#### 4. 소년의 진술

소년은 평소부터 가정에 대해 불만이 많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3초에 우연히 친구들에게서 부탄가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가게에서 사다가 집에서 혼자 했다.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나 불안할 때 부탄가스를 흡입하는데 흡입한 뒤 증상은 학교에서 기계를 만지던 광경이 보이거나 전자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이 기계를 만지는 광경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가스 흡입을 하다가 부모 및 형에게 여러번 들켰는데, 이때마다 안하겠다고 말했지만 다시 하게 되어 결국 부모가 입원시키게 되었다.

현재 별다른 신체 이상은 없으며 장래 희망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 IV. 사례 4 : 친구의 권유로 본드를 남용한 청소년

1. 일 시 : 2003

2. 장 소 : 서울 ○○원 회의실

3. 소년의 배경

①성별 : 남

②연령 : 19세

③주거지 : 은평구 구파발 동산리

판잣집이 많고 야산과 개천이 많으며 구파발엔 유흥업소가 많다.

구파발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주로 가출한 소년들이 인근 야산이나 개천가에서 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4. 가족관계

아버지(64세) : 공원

어머니(54세) : 공원

형 (34세) : 회사원(고졸)

누나 (31세) : 공원(고졸)

형 (29세) : 공원(고졸)

형 (27세) : 대학생

누나 (23세) : 공원이었으나 현재는 정신이상으로 집에 있음(중졸)

누나 (21세) : 공원(고졸)

소년

## 5. 가정환경

소년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복권에 재미를 붙여 복권을 자주 샀다. 이렇게 복권의 구매가 투기의 성향을 띠자 논밭 그리고 집 가게까지 모두 날려버렸다. 소년의 아버지는 말씨가 거칠고 평소에도 소년에게 욕섞인 말투로 말씀하셨으며 소년은 아버지를 무척 싫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자식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욕부터 하셔서 소년 가족은 평소에도 대화가 없는 편이라고 한다. 어머니도 완고하신 편이고 인정은 전혀 없다고 한다. 가정의 분위기가 삭막하여 소년은 이 분위기를 참아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둘째 형은 시골에 살때부터 집에 돈을 훔쳐가 싸움과 술로써 살며, 집에서는 포기한 자식이라고 한다. 과거엔 교도소까지 갔다온 경험이 있다고 하며, 둘째형을 소년은 가장 증오한다고 했다. 둘째 누나는 공장에 다니다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에 정신이상자가 되어 지금 집에 있다. 이 때문에 소년 부모님은 더 화를 자주 내신다고 한다.

소년은 막내 누나를 잘 따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심정을 몰라주지만 막내 누나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잘 이해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소년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있는 것이 더 편했다고 했다.

복권 때문에 집이 망하게 되자 소년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했다 소년은 9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만 났다고 했다. 소년은 처음 올라올 땐 가슴이 벅차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막상 정착한 곳은 구파발에서 조금 들어간 동산리-서울 변두리였다고 한다. 소년은 실망만 거듭되는 서울 생활로 인하여 자신의 꿈이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차라리 시골이 더 그리워졌다고 했다.

## 6. 개인력

소년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전학을 했다. 전학을 하여 소년은 친구도 없고,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계속 외롭게 학교를 다녔다. 그러다가 어느날 이웃에 사는 또래 친구 H가 소년과 같은 반인 것을 발견하고 그와 단짝으로 지내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쯤 친구 H는 구파발에서 활동하는 가출 꼬마 소년들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년도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소년은 이들 속에서 두목 역할을 했다. 소년은 이때부터 학교에 갈 마음이 없어지고 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비행을 저질렀다.

이 꼬마들은 구파발 근처에 집이 있는 가출 소년들로서 주로 철사를 가지고

택시나 자가용의 문을 열어 돈을 훔치는 절도범들이었다. 이들은 차의 문을 열고 돈을 훔치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소년은 말했다. 소년은 이들이 훔치는 동안 망을 본다고 했다. 소년은 돈이 궁하지 않고 또 이들과 돌아다니면서 야산이나 개천가에 잠자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다고 했다.

소년은 꼬마 또래들과 돈을 털어 술집에 들어가 접대부들과 놀고 또 여관에 가서 잠도 잤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아무 곳에서나 잤다고 한다. 2학년이 되자 이내 문체 학생으로 주목되어 학교 내외의 문체 학생들과 친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빠져서 몰래 담배도 피우고 약한 친구들에게 협박을 하여 돈도 뺏었다. 2학년때부터 친구 3명과 어울려 다녔고 이때부터 자퇴할 생각을 했다. 3학년이 되자 3명 모두 한꺼번에 자퇴서를 내기로 약속했지만 두 친구는 내지 않고 소년만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에서는 자퇴서 처리를 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도록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소년은 가출한 상태였다.

소년은 집을 나와서 가출 꼬마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구과발 전철역에서 절도를 했다. 소년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돈을 풍부하게 쓰는 것이 좋았으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떠돌이 생활이 편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소년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자퇴서를 수리했다고 한다. 소년은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부모님께 발각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부모님의 잔소리와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생활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가출을 또 시도했다. 소년의 옛날 친구들이 소년에게 3학년 가을 소풍때 같이 소풍을 가자고 제의했다. 소년은 이들과 같이 서오능에 소풍을 갔다. 소년의 친구들은 소풍을 가서 단체 행동을 하지 않고 소년과 같이 산 뒤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이때 한 친구가 본드를 꺼내놓고 불자고 했다. 소년은 불줄 모른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존심이 상해서 본드를 흡입했다. 소년에게는 이것이 처음 시도한 본드 흡입이다. 소년은 흡입한 후 역전 꼬마들에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본드 흡입을 이야기했더니 꼬마들은 이내 본드를 흡입하게 되었다.

이들은 본드 흡입을 알고부터 심심하면 야산에 올라가 본드를 불고 내려와 길을 가는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또 이들은 환각상태에서 술집을 찾아가 술도 마시고 본드를 다시 흡입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본드를 한꺼번에 수십개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본드는 주로 야산이나 개천가에서 붙여놓고 이용하며, 특히 야산에 방공호가 많아 이들은 주로 이곳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한때 첫째 형에게 붙잡혀 강제로 부평에 있는 가구점에 취직했지만 10개월 정도 다니다가 도망을 쳤다. 그 후 신문팔이 소년들과 만나 3개월 정도 신문을 팔았다. 그러다가 이들과 어울려 떠돌아 다니다가 88년도 1월에 신월리에 있는 가구점 직공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이미 85년, 86년도에 절도죄로 두 번 입소 경험이 있었다. 이번의 입소는 꼬마들 3명과 폭행 및 독극물죄를 범하여 이루어졌다. 신월리 가구점에서 2개월 정도 있다가 도망을 나온 날 구파발 전철역전에서 옛날에 같이 지냈던 꼬마 3명을 만났다. 이들은 야산 방공호에 올라가서 본드를 흡입하고 산을 내려와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술을 마신 후에 다시 본드를 불자고 합의하여 방공호에 가서 숨겨둔 본드를 꺼내 흡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환각상태에서 동산리 쪽으로 올라가다가 꼬마 중 1명이 “여자다” 하면서 뛰어갔다고 한다. 이내 두 친구도 달려갔고 본인은 동산리 주유소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한참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 꼬마들이 팬티만 입고 달려오기에 왜 그러냐고 하니 “들켰다” 고하여 지축리 다리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이 곳도 이들이 본드를 묻어놓고 사용하는 장소이며 그날 밤 이곳에서 잠을 잤다.

성 별	남
연 령	19세
학 력	중3 중퇴(소년원에서 중등검정고시 합격)
성 격	영웅심이 있으며 자존심이 강하다
가족과의 관계	부모님의 잔소리를 무척이나 싫어하며 단칸방에 9식구가 살기 때문에 집이 싫음
약물의 종류	본드
약물의 사용동기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았으나 친구가 권해서
약물사용방법	비닐용기에 넣어 집단으로
약물사용장소	야산
약물사용기간(횟수)	자주 사용했으며 자퇴 후 중3때부터 사용
약물 출처	철물점
약물구입비	절도
약물사용과 비행(증세)	여자에게 시선이 몰두됨
약물에 대한 태도	본드를 사용할 때는 괴로움을 잊기위해 사용했으며 현재는 반성하고 있으며 새 삶을 살기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소년의 특징	상습적 본드 사용자이며 절도까지 겸한 비행을 저질렀고 환각상태에서 여자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새벽녘에 다리 위로 여고생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환각상태였기 때문에 오로지 여자만 보였다고 한다. 소년과 꼬마 3명은 여자를 성폭행하고나서 그 곳을 떠났다. 이들은 계속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본드, 담배, 술로써 낮시간을 보내며 배회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성폭행 당한 여고생의 부모와 오빠가 환각상태로 배회하던 이들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소년은 지금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으며 출원 후에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간섭을 어떻게 참아낼지 걱정하고 있다. 현재 소년원에서 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했으며 계속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

## V. 사례 5 : 본드의 남용으로 인해 정신분열이 일어난 청소년

1. 일 시 : 1989. 8. 2.

2. 장 소 : 서울 ○○원 회의실

3. 소년의 배경

①성별 : 남

②연령 : 19세

③학력 : 고1 중퇴

④주거지 : 성남시에 단독 주택에 살고 있다.

주택가이나 조금 걸어나오면 술집이 즐비하여 여관이나 여인숙이 많다고 한다.

4. 가족관계

아버지(51세) : 부동산소개업자

어머니(49세) : 가사

형 (27세) : 군인(고졸)

형 (22세) : 무직(고졸)

5. 가정환경

가정형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의 아버지는 집안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

시다고 한다.

#### 6. 소년의 개인력

소년은 중학교에 들어와서부터 담배를 피우고 중1 겨울에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를 흡입하다가 잡혀서 훈방된 적도 있었다.

훈방 이후 다시 본드를 흡입하여 감별소에 입소한 적이 있었다. 퇴원 후 다른 중학교로 전학했지만 옛친구들과 계속 만나서 본드를 흡입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때도 본드 흡입으로 잡혀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본드 흡입이 계속되자 환각상태에서 손끝에서 무지개색 레이저 광선같이 쪽 뻗어나가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기물을 파괴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년은 고등학교 1년때 중퇴를 했다 이때 집에서 쉬면서 본드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한다. 다시 이듬해에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성 별	남
연 령	19세
학 력	고 1 중퇴
성 격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불만은 없다
약물의 종류	본드
약물의 사용동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다가 따라서 사용하게 됨
약물사용방법	비닐용기에 넣어 흡입
약물사용장소	야산, 길거리
약물사용기간	중 1때부터 자주 사용
약물출처	가게(철물점)
약물구입비	용돈
약물사용과 비행(증세)	환시 현상이 일어나며 소년의 경우에는 너무 자주 사용하여 약간의 정신이상까지 온 것 같다
약물에 대한 감정	본드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본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소년의 특징	특별한 이유없이 본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경우다 (평범한 가정)

이 곳은 시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 학교이다. 입소 경위는 친구 2명과 함께 길거리 전봇대 옆에서 본드를 흡입하다가 경찰

에 발각되어 소년원에 오게 되었다.

소년은 면담 중에 모든 만물은 자기 손에 달려 있으며 본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다. 소년의 언행을 미루어보아 약간의 정신이상이 온 것 같았다.

## VI. 사례 6 : 호기심과 선배의 권유로 히로뽕을 남용한 청소년

1. 일 시 : 1989. 9. 1. P.M. 3:40~4:40

2. 장 소 : ○○원 사회의실

3. 소년의 배경

①성별 : 남

②연령 : 19세

③학력 : 중학교 자퇴

④성격 : 온순한 편으로 공격성은 보이지 않음

⑤가족관계

아버지 : 소년이 국민학교 2학년 때 사망

어머니 : 상인

형 : 6명(3명은 결혼하여 분가)

누나 : 1명

4. 가정분위기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가 장사를 하여 생활을 꾸려나간다. 둘째 형과 거리낌없는 대화가 오가나 그 외의 가족에게는 무관심하다. 그리고 무단 결석으로 인해 형에게 꾸중을 듣거나 맞기도 했지만 결국은 소년 뜻대로 자퇴하고 말았다.

5. 소년의 진술

소년은 중학교 때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결석이 빈번해졌다. 가족들이 결석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으나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서서는 다른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렸고 중 3때 자퇴서를 냈다. 자퇴 이후 신발공장을 다녔는데 한 공장에 안정하지 못하고 2달 정도 벌어서 유흥비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그만두었다고 한다.

자퇴 후 소년은 처음에는 호기심도 생기고 선배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권유도 해서 히로뽕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같이 사용했다. 주로 밤시간에 여관에 투숙하여 주입했으며 주입 후에는 극장이나

오락실 유흥업소를 배회하며 고사바리(히로뽕을 팔러 다니는 사람) 노릇을 했다고 한다. 히로뽕의 약효가 떨어지는 아침시간부터는 잠을 잤는데 이것은 히로뽕 주입 후에는 집중력이 강해지며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져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은 처음부터 0.8cc정도의 많은 양을 투입했기 때문에 곧 체중이 줄고 얼굴색이 나빠졌다. 그래서 히로뽕 사용 3달째부터 0.5cc로 양을 줄였다. 투입 양을 줄였을 때 신체에 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히로뽕 약효가 없었다 즉 히로뽕을 맞아도 계속 피곤하고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0.5cc를 주입하니까 피로감이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집중력이 생겼다. 또한 히로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중단한 적도 있지만 석달 이상은 참지 못하고 히로뽕을 다시 주입하게 되었다.

소년은 히로뽕을 구입하기 위해 형에게 용돈을 타기도 하고, 공장에서 벌은 돈으로 구입하기도 했으며 집이 부유한 친구로부터 공짜로 얻기도 했다.

히로뽕 외에 다른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히로뽕 사용 기간은 일년 정도였다. 히로뽕의 투입 횟수가 늘수록 팔에 심한 근육통이 생겼으며(팔의 근육이 몹시 당겼다고 한다) 주사자국이 팔에 남았다고 한다. 히로뽕 효과가 떨어지면 수면을 취하고 싶고 몸이 아프고 힘이 없는 탈진상태가 되지만 영양있는 음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소년원에 오게 된 경위는 89년 3월에 집에서 히로뽕을 투입 후 친구를 만나러 나가다가 친구의 고발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현재는 신체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체중이 약 10kg정도 불었으나 소년원에 감금된 이후 히로뽕 주입을 못하게 되자 손이 떨려고 두통이 심했다고 한다. 소년원에서는 이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었으며 약 3개월이 지나자 이 증상이 없어졌다고 했다.

소년은 히로뽕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면 곧 사용하게 된다고 했으며 히로뽕 사용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서는 서면거리나 오락실 등에서 점조직의 통로가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의 계획은 소년원을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어머니를 돕겠다고 했으며 히로뽕 사용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 6. 치료책

소년은 온순한 편으로 히로뽕 사용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가족의 사랑과 관심,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의 개입이 요청된다.

성 별	남
연 령	19세
학 력	중학교 중퇴
성 격	온순한 편(공격적이지 않음)
가족과의 관계	4번째 형과 대화하며 그밖의 식구와는 대화가 없다
교우관계	불량친구들과 배회하면서 자퇴를 하게 됨
약물 종류	히로뽕
약물사용기간	약 1년
약물사용동기	호기심과 선배의 권유
약물사용방법	집단적으로 정맥주사 처음엔 남이 주입해 주었으나 혼자 주입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직접 주입했다
약물사용장소	여관(집단적으로)집에서 혼자 상요하기도 함
약물 출처	친구
약물구입비	친구에게 약물을 공짜로 얻기도 하고 집에서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타냈다. 히로뽕을 팔기도 하고 초기에(자퇴후)는 공장에서 번돈으로
약물사용과 비행	약물사용 후 심야극장에 가거나 전자오락실, 유흥업소를 배회, 고사바리(히로뽕 중간상인)노릇을 하기도 함
약물에 대한 감정	앞으로 할 생각은 없으나 나가면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왜냐하면 히로뽕을 주입하는 것을 보면 자제하지 못할 것 같다)
소년의 특징	처음엔 0.8cc 정도로 투입하다가 석달 후 0.5cc로 양을 줄여서 그러나 중단하지 못함

## VII. 사례 7 :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한 청소년

1. 일 시 : 1989. 9. 8. P.M. 3:20~4:10
  2. 장 소 : ○○원 사회의실
  3. 소년의 배경
- ①성별 : 남

②연령 : 20세

③학력 : 중학교 3년 자퇴

큰 싸움을 하고 난 뒤 며칠 동안 학교를 안가게 되었는데, 이후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여 못감.

④직업력 : 전자오락실 종업원, 손수레 물건장사

⑤성격 : 다른 사람과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나, 선배의 말은 잘 따르며 후배들에게도 잘 대해주는 형이다

⑥거주지 : 영도

⑦가족관계 :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현재 집에는 어머니와 형 1명과 소년이 살고 있다. 집에서는 소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어릴 때부터 못되게 굴어서 그렇다고 했다.

#### 4. 소년의 진술

소년은 중학교 다닐 때 학우들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서 용돈으로 썼다. 중2년 말에 학교에서 학우와 큰 싸움을 해서 많이 맞았다. 그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고 2~3달 가출을 하여 결국 3학년 초에 자퇴를 했다.

소년의 약물사용경험은 중 2때 선배 집에서 본드 흡입을 본 뒤 세 번 본드 흡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목이 아파서 사용을 중단했다고 한다. 3학년 초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영도에 있는 배 지키는 곳에서 선배들이 대마초를 주었는데, 이후 집에서 대마 3그루를 키워서 사용했다고 한다(대마초는 식욕을 돋구어 살이 찐). 약 2달 사용했을 즈음 히로뽕이 기분을 좋게 하는 약이라는 말을 듣고 태화쇼핑 앞에서 히로뽕을 줄 수 있는 선배를 만나 즐랐다. 선배는 안된다고 했지만(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함) 자꾸만 즐라서 서면 어느 다방으로 갔으며 선배는 갖고 있는 히로뽕과 주사기를 펼쳐 보였고 여관으로 가서 투약했다. 이때는(85년도) 일반 사람들이 히로뽕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다방에서 히로뽕을 펼쳐도 괜찮았다고 한다.

이 후 소년은 오락실을 하는 선배 밑에 있으면서 오락실에서 히로뽕(소년은 술이라고 했다)을 찾는 사람들에게 히로뽕을 팔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남포동 부영극장 같은데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히로뽕을 팔기도 했다. 배회하는 청소년 중에는 스스로 히로뽕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코카인, 헤로인을 6번 정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며, 선배와 모르는 중년 남자 2명과 같이 했다고 했다. 코카인은 태워서 코로 흡입하며 헤로인은 분홍색과 흰색이 있는데 히로뽕과 같이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한다(이러한 물질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홍콩에서 밀수입하기 때문에 귀해서 자주 사용할 수 없으며 약이 독하다고 표현했으며 히로뽕이나 대마초의 사용후의 증세와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히로뽕은 자제를 하면 끊는게 가능하지만 코카인이나 헤로인은 돈을 싸들고 찾아다녀야 할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함).

소년의 히로뽕 사용기간은 3년이며 하루에 1번 정도 사용했다고 했다. 처음엔 0.5cc를 사용하다가 차츰 늘었지만 다시 0.3cc로 줄였다고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처음 히로뽕을 사용하게 되면 남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데 대해서 영웅심을 가지게 되며 히로뽕 약효로 인해서 내적으로 힘이 솟게 되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사람이 자신의 한주먹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히로뽕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되면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고 했다

소년은 히로뽕을 집단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사용했으며 주사뿐만 아니라 음식(술, 커피, 비빔밥, 아이스크림)에도 소량을 타서 먹었다고 했다(맛은 쓰지만 기분은 좋다고 함).

히로뽕의 출처는 오락실을 하는 선배로부터 얻어서 썼으며, 친분이 있는 히로뽕 사용자들끼리 히로뽕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더럽다고 표현하며, 자신도 친한 후배들에게 그냥 나눠주지만 후배들이 한번씩 형님 용돈하라고 돈을 주기도 하며 공짜로 주는 것인지 모르고 돈을 주는 초보자도 있다고 했다. 소년의 히로뽕 사용후 증세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누가 말을 걸면 짜증이 나며 히로뽕 사용에 대한 경쟁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며 환청으로 인해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긴다고 했다.

그리고 염산이 뼈를 삭게 하기 때문에 히로뽕 사용자는 힘든 일을 못한다고 했으며 지금 현재 소년은 뼈마디가 아프다고 했다. 히로뽕을 투여했을 때 외부적으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지만 혈관을 통해서 몸 전체에 핏도는 황홀함과 용기가 생기며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히로뽕을 팔거나 전자오락을 하거나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춘다고 했다. 다만 집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 곳에 몰두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지갑에 몰두한 경우에는 투여 후 계속 소매치기를 하게 되어 처음에 잘 배워야 된다고 했다.

또한 히로뽕이 알려진 이 후에는 히로뽕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색깔도 누

리며 투여 후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소년은 워낙 어릴 때부터 히로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면 안다고 했다.

소년의 소년원 입원경로는 친구가 경찰에 알렸고 소년이 히로뽕의 연속적인 투여로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여서 경찰이 가택수사를 했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 결과 히로뽕은 없었으나 주사기가 나와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 히로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서 끝까지 저항했으나 보건사회부 마약 단속반에 잡혀가서 심한 폭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말했다고 한다.

성 별	남
연 령	20세
학 력	중학교 3년 자퇴
성 격	선배의 말을 잘 따르며 후배들에게도 잘 해주는 편이다
가족과의 관계	가족들이 서로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약물의 종류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약물사용기간	히로뽕 - 약 3년(하루에 한번) 대마초 - 약 3년(가끔) 헤로인/코카인 - 약 6번
약물의 사용동기	호기심
약물사용방법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히로뽕 - 주사 또는 음식물에 섞어서 헤로인 - 주사 대마초 흡연, 코카인 - 코로 흡입
약물사용장소	부모님이 외출하고 없는 잠 또는 여관
약물 출처	선배
약물구입비	얻어서 사용
약물사용과 비행(증세)	약물사용 후 유흥업소에 가거나, 히로뽕을 판매함
약물에 대한 감정	히로뽕이 신체에 절대적으로 안좋다는 생각은 없으며 소년원을 나간 후 가끔 사용할 것이라고 함
소년의 특징	소년은 선배 밑에서 중간상인 역할을 했으며 히로뽕의 무절제한 사용을 자제했으며 생활의 활력소로써 약물을 사용했다

소년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히로뽕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도 밤에 잘 때면 히로뽕이 생각난다고 했다.

#### 5. 치료책

소년원 중학교 때부터 불량학생이었으며 지역적(영도) 특성으로 인해서 우범지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다.

소년과 같은 마약 사용자들을 위한 재활교육이 꼭 필요하며 이 교육은 히로뽕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생의 목표를 계획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Ⅷ. 사례 8 : 친구들과 함께 토루엔을 남용한 청소년

1. 일 시 : 1989. 9. 20. P.M. 2:30~3:00

2. 장 소 : 소년 ○○소 상담실

3. 소년의 배경

①성별 : 남

②연령 : 17세

③학력 : 중 2 중퇴(가정형편도 안 좋고 학교에도 가기 싫어서 무단결석)

④직업력 : 신발공장

⑤성격 : 온순

⑥가족관계

아버지

동생 1명 (학생)

동생 1명 (공장) : 15세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으며 본인이 자퇴서를 낼때도 아버지는 많이 꾸중하지 않았음.

4. 소년의 진술

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고 89년 4월에 친구 집에서 친구들이 토루엔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 하지만 이때는 토루엔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하게 되었다.

하기 전에 친구들이 “기분이 좋다, 4차원으로 간다, 마음먹은 대로 보인다” 라고 했다. 실제 해본 결과 이와같이 되었으나 뒷골이 당겼으며 때로는 (과잉) 용기가 생겨서 친구에게 평소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싸우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 모두 눈이 심하게 충혈 되었다고 했다.

토루엔의 사용방법은 화장지에 토루엔 액체를 적시고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고 흡입한다. 보통 5~10분 동안 냄새를 맡게 되며, 그 효과는 20분 정도라고 한다. 장소는 산이나 친구집(빈집), 골목 등에서 저녁에 사용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사용 후 신체적 변화로는 4번 전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안좋아지고 혀가 꼬 부라지고 뒷골이 땡기고 눈에 힘이 없어져서 동자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고 했다(아직도 눈이 사시같이 중앙으로 약간 몰린듯한 인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친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소년에게만 발생했다고 했다. 사용 횟수는 친구들과 모였을 때 친구들이 토루엔을 가지고 사용할 때 소년도 사용했으며 약 4번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 소년은 아버지가 과거에 본드 공장을 하실 때 본드 종류가 안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가능한 한 자제했다고 했다.

감별소에 오게 된 경위는 여름에 해수욕장에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친구 중에 한명이 토루엔을 가지고 와서는 하자고 했고, 흡입 후 친구 하나가 텐트 안에서 고함을 질러서 주민(여관 주인) 신고로 잡히게 되었다.

감별소를 나가면 소년은 신발공장에 계속 다닐 것이며, 토루엔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치료자는 토루엔과 같은 환각제는 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기억력이 감퇴되어 앞으로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별	남
연 령	17세
학 력	중 2 중퇴
성 격	은순
가족과의 관계	관심이 없는 편
약물의 종류	토루엔
약물의 사용동기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으로
약물사용방법	화장지에 토루엔 액체를 적시고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
약물사용장소	산, 친구집, 골목
약물사용기간(횟수)	89년 4월 이후 4번 정도 사용
약물 출처	공장에서
약물구입비	공장에서
약물사용과 비행(증세)	환시, 뒷골이 당기고 과잉용기가 생기며 친구들에게 불만을 터뜨려 싸움을 함. 4번 정도 사용했을 때 혀가 꼬부라지고 피부가 나빠지고 눈에 hla이 없어져 눈동자가 한 곳에 모임
약물에 대한 감정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음
소년의 특징	눈동자가 한곳으로 몰려 있고 혀가 꼬부라짐

#### IX. 사례 9 :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본드를 남용한 청소년

1. 일 시 : 1989. 9. 20. P.M. 4:00~4:30
2. 장 소 : 소년감별소 상담실

### 3. 소년의 속성

- ①성별 : 남
- ②연령 : 13세
- ③학력 : 무
- ④직업력 : 술집을 돌아다니며 껌이나 박카스 판매
- ⑤가족관계 : 고아

### 4. 소년의 진술

어렸을 때부터 형제 복지원에서 자랐으며 학교는 다니지 않았고 복지원 내에 있는 교회에서 글을 배웠다. 86년도에 복지원이 폐쇄되어 소년의 집으로 갔으나 형과 친구와 함께 탈출했다. 탈출 후 형들 밑에서 앵벌이를 했다. 하루 수입은 오천원에서 만원 정도이며, 형들에게 많이 뺏긴다고 했다. 소년은 이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주었다고 한다. 소년은 돈을 저축해본 적이 없으며, 번돈으로 먹고 싶은 것과 입고 싶은 것을 사며 영화를(공포영화, 로봇이 나오는 영화, 폭력영화)보거나 전자오락을 한다고 했다.

소년은 복지원에 있을 때, 형들이 신나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며 사회에 나와서 형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흡입하고 버린 본드가 담긴 비닐을 흡입하고 했다. 86년 이후(앵벌이를 하기 시작했을 때) 형의 권유로 본드를 직접 사용하게 되었는데, 나쁘다는 것을 몰랐으며 형이 하라니까 했다고 한다.

소년은 주로 풀밭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본드를 사용했다(공사판에서 스펀지 위에 잘 때는 따뜻하며 겨울에는 여인숙에서 잔다고 했다). 추운 날 풀밭에서 잘 때 본드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장소는 주로 산이나 공사판이며, 밤 12시에 사용하고는 잔다고 했다.

정확히 몇 번 사용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으나 증상이나 소년의 말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자주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사용 후 증상으로는 사람이 토끼, 공룡, 호랑이로 보이며, 때로는 친구가 시비를 거는 것 같이 보여서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슈퍼맨으로 생각되어 높은데서 뛰어내리고 싶다고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게보린과 박카스)을 사먹으며 식당에서 라면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고 한다. 소년은 두통 외에 다른 증세는 없었다고 한다.

성 별	남
연 령	13세
학 력	무
성 격	
가족과의 관계	고아
약물의 종류	본드
약물의 사용동기	(형)선배의 권유(본드를 사용하면 몸이 더워져서 잠을 잘 수 있음)
약물사용방법	비닐용기에 넣어서 흡입하거나 자체 흡입
약물사용장소	야산, 공사판
약물사용기간	약 3년(가끔)
약물 출처	철물점
약물구입비	앵벌이한 돈으로
약물사용과 비행(증세)	환시현상이 일어나며 특별한 비행은 없었다. 본드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다
약물에 대한 감정	지금은 본드가 나쁘다는 것을 알며 다시는 사용하지 않음
소년의 특징	고아로 버려져 형제 복지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비행청소년. 범죄자들의 행동들을 기준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형들이 시키는대로 잘 따르는 편이다

입소 경위는 빌딩 옥상에서 친구 6명이 본드 흡입을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잡히게 되었다. 그 할아버지는 본드를 흡입하면 바보가 되며 살이 녹고 두뇌의 세포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본드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한다. 앞으로 본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형들과 같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또한 다른 아이들이 글을 잘 쓰고 읽는 것이 부럽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했으며 감별소를 나가면 신발공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 X. 사례 10 : 처음 본드를 남용하다가 잡힌 청소년

1. 일 시 : 1989. 9. 21. P.M. 4:00~4:30

2. 장 소 : 소년감별소 상담실

3. 소년의 배경

①성별 : 남

②연령 : 19세

③학력 : 중 2 중퇴(무단결석)

④직업력 : 신발공장 공원, 선반 기계부속 공장 공원

⑤가족관계 :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 중이며, 본인은 처음에는 외갓집에 있다가 혼자 자취했다. 형제는 없으며 외동이라고 한다.

4. 소년의 진술

소년은 중2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휴학하게 되었는데 1년 뒤에 학교에 복학하지 않아서 퇴학되었다. 학교 중퇴 이후 신발공장에 있다가 삼촌이 경영하는 선반공장으로 옮겼다. 월급은 자취생활이 될 만큼 받았으며 남은 월급은 삼촌이 적금을 넣어준다고 했다.

소년은 88년에 다른 사람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것을 봤고 그들은 “어지럽고 기분이 좋고 환상이 생기고 손가락 끝에서 레이저광선이 나간다”고 했다. 그러다가 89년에 처음으로 친구와 같이 집에서 4명이 본드를 직접 사용하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사용후 증상은 듣던 것과는 달리 기분도 좋아지지 않았으나 머리가 아프고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호물호물한 물체가 보였다고 한다. 소년의 친구들은 학교 또는 공장에 다니거나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며 평소에 이들과 같이 영화구경, 롤러스케이트장, 전자오락실, 당구장 등에 간다고 했다.

본드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지금도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치료자는 본드가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앞으로 소년은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싶고, 선반 기술자격증을 따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성 별	남
연 령	19세
학 력	중 2 중퇴
성 격	은순
가족과의 관계	부모 이혼, 혼자 자취
약물의 종류	본드
약물의 사용동기	1년전에 본드가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고 들었지만 처음으로 사용하다가 잡힘
약물사용방법	비닐용기, 집단
약물사용장소	집
약물사용기간	초범
약물 출처	가게
약물구입비	용돈(공장에서 번 돈)
약물사용과 비행(증세)	들던 것과는 달리 머리가 아프고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호물호물한 물체가 보였다고 함
약물에 대한 감정	본드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음
소년의 특징	다른 비행청소년들이 직업 없이 떠도는 것과는 달리 착실하게 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 돈을 벌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음

# **(ABSTRACT)**

YOON HEUNG-HEE

NARCOTICS CRIMES INVESTIGATION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 **I . PURPOSE**

IN SOCIETIES DEVELOPED BY INDUSTRIALIZATION AND CHANGED BY URBANIZATION DRUG ABUSE SURFACES AS A MAJOR SOCIAL PROBLEM. SOUTH KOREA, NOT EXCEPTIONAL, FACES A SERIOUS ADOLESCENT DRUG ABUSE PROBLEM

## **II. INTRODUCTION**

ALTHOUGH ADOLESCENT DRUG ABUSE DOESN' T LEAD TO A DIRECT VICTIM THE ABUSER HIM/HERSELF COULD FACE ALTERED PHYSICAL/MENTAL GROWTH AND MOREOVER UNDER MENTALLY DERANGED STATE A SECOND JUVENILE DELINQUENCY IS PRONE TO HAPPEN. NOWADAYS ADOLESCENT GRIMES ARE BECOMING MORE VIOLENT AND MORE IN MASSES. SINCE THE AGE LEVEL OF THE DELINQUENTS ARE GETTING LOWER AND LOWER, DRUG ABUSE CAN BE SUSPECTED AS ONE OF THE CHIEF REASONS OF THOSE CRIMES. PROGRAMS OF PREVENTION IS A MAJOR ISSUE.

## **III. METHOD**

THIS ESSAY IS ABOUT -

○ ASPECTS OF MAJOR DRUGS ADOLESCENTS ABUSE SUCH AS :  
ALCOHOL, CIGARETTES, PAIN-KILLERS, INHALING MATERIALS  
SUCH AS GLUE AND BUTANE, AMPHETAMINES, CAFFEINE, WEEDS

○ EXAMINING THE CAUSES OF DRUG ABUSE :

1. BIOLOGICAL CAUSES : INHERENT ADOLESCENT TRAITS AND  
GENETIC REASONS

2. SOCIAL-MENTAL CAUSES

3. PERSONAL CAUSES : SPECIFIC PERIODS OF ADOLESCENT AGE

4. DOMESTIC CAUSES : FAMILY BACKGROUNDS - LIVING  
STANDARDS, PARENT ALCOHOL ABUSE

5. REGIONAL CAUSES : REDEVELOPING AREAS, SLUMS, AREAS  
SURROUNDED BY MOUNTAINS

6. SOCIAL-ENVIRONMENTAL CAUSES : DISHARMONY  
PHENOMENON, DRUGS DEPICTED BY THE MASS-MEDIA AND  
WHAT IS LEARNED FROM IT.

○ THE FACTS OF ADOLESCENT DRUG-ABUSE STUDIED AND  
ANALYZED TO STUDY THE EFFECTS OF DRUG ABUSE :

1. EXPERIENCES OF USING DIFFERENT TYPES OF DRUGS  
ACCORDING TO AGE

2. DRUG ABUSE OBSERVED ACCORDING TO AGE AND GENDER

3. CRIMES RELATED TO DRUGS COMMITTED BY ADOLESCENTS  
ACCORDING TO AGE

4. NARCOTICS USERS CAUGHT ACCORDING TO AGE

5. ACTUAL RESULTS OF DRUG INVESTIGATION

6. DRUG ABUSE OBSERVED IN U.S.A AND JAPAN

#### **IV. RESULTS**

PROGRAMS TO PREVENT DRUG ABUSE :

1. SPECIALIZED AND ORGANIZED GOVERNMENTAL POLICIES THAT

ENCOURAGE ECONOMIC AND SYSTEMATIC INVESTMENTS

2. SOCIAL-ENVIRONMENTAL SOLUTIONS TO MAKE A SOCIAL ATMOSPHERE THAT FREE ADOLESCENTS FROM HARMFUL SOCIAL ENVIRONMENT, AND TO IMPROVE ROUTES OF DRUG CIRCULATION WITH THE ASSISTANCE OF REGIONAL SOCIAL ENDEAVOR

3. EDUCATIONAL INSTITUTIONS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S SHOULD REGULARLY AND PLANFULLY EDUCATE YOUNG CHILDREN TO PREVENT DRUG ABUSE AND GIVE THEM THE CORRECT IMPRESSION OF DRUGS SO THAT CRIMES ARE COMMITTED FROM DRUG ABUSE.

4. SOCIAL INDUSTRY ORGANIZATION SUCH AS FAMILIES AND REGIONAL SOCIETY SHOULD TRY TO MAKE AN AGGREGATE EDUCATIONAL SERVICE

## V.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IES ABOVE IT COULD BE CONCLUDED THAT ADOLESCENT DRUG ABUSERS AND JUVENILE DELINQUENTS SHOULDN' T ALWAYS BE STRICTLY DEALT BY THE LAW BUT INSTEAD, TAKING PERIODICAL ASPECTS OF ADOLESCENT GROWTH INTO CONSIDERATION, BY GUIDANCE AND EDUCATION TO LEAD THEM BACK TO THE RIGHT PATH. SUPPLEMENTARY PROGRAMS THAT SUPPORT A SPECIALIZED AND ORGANIZED SYSTEM TO PREVENT THE ABUSE BY FINDING OUT THE CAUSE, THE TREATMENT, AND THE WAYS OF RECOVERY ARE IN DESPERATE NEED.

KEY WORDS : ADOLESCENT, DRUG ABUSE, CAUSE, FACTS, PROGRAMS OF PREVENTION